국통 73-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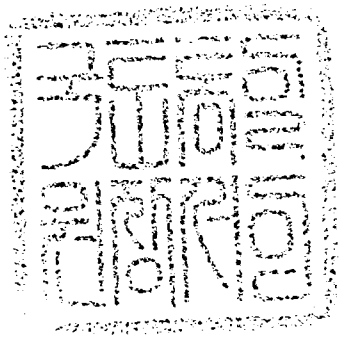
北韓敎科書에 反映된 歷史歪曲
內 容 分 析

1973. 7. 30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7. 30



研究機關 : 서 울 師 範 大 學
研究責任者 : 金 泳 燦

目　　次

Ⅰ. 緖　　章 3

1. 研究의　目的 3

2. 研究의　內容 5

3. 研究의　方法 7

4. 研究의　制限点 8

Ⅱ. 北韓의　歷史觀　分析 10

1. 唯物史觀의　特徵 10

2. 北韓의　国史觀　分析 21

Ⅲ. 北韓의　歷史　歪曲　內容　分析 38

1. 初·中等用　歷史敎材　歪曲　內容　分析 39

2. 大学　및　一般用　歷史敎材　歪曲　內容　分析 69

Ⅳ. 要約　및　提言 89

1. 要　約 89

2. 提　言 93

參考文献 96

目　　次

Ⅰ. 緖　　章

共産政治에 対한 正当性을 立証하고 支配権力의 統治에 対한 名分을 마련해 주는 道具로서 歷史学이 利用되는 것은 共産主義 国家들에서 흔히 있는 一般的인 傾向이다.

北韓은 그들의 共産体制에 対한 正統性과 独裁 統治에 対한 必然性을 立証하기 위하여 우리의 歷史를 唯物史観 一辺倒로 再解釈할 뿐만 아니라 歪曲 또는 捏造까지도 서슴치 않고 行하고 있다.

歪曲 또는 捏造된 歷史를 学校 敎育을 通하여 자라나는 世代에게 正史로서 北韓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南北 対話와 統一을 위하여 問題가 아니될 수 없다.

本研究는 北韓이 우리의 歷史를 어떻게 歪曲 또는 捏造하여 자라나는 世代에게 敎育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緖章에서는 本研究의 目的, 内容, 方法 制限点 等에 対하여 仔細히 記述한다.

1. 研究의 目的

最近 잇따른 国内外 情勢 変動은 南北 対決의 様相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南北의 対決이 武力的 衝突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한 것은 아니지만 国内外 情勢의 움직임으로 보아 非暴力的이면서 政治 外交的, 経済的, 文化的, 敎育的 対決로 発展될 可能性은 크다.

이와같은 南北 対決은 直接的인 또는 間接的인 対話와 交流를 通하여 進行될 것이다. 対話와 交流가 特히 범 国民的 水準으로 拡大될 때 北韓 共産主義에 対한 우리 国民들 各者의 철저한 把握이 더욱 要求된다.

北韓 共産主義를 把握하는 데에는 여러 側面이 있을 수 있다. 本研究는 歷史敎育的 側面에서 北韓 共産主義 敎育을 把握하고 앞으로의 南北 対話와 交流를 通한 対決에서 이에 対処하기 위한 対備策을 마련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北韓에 있어서 敎育은 政治 目的 実現을 위한 手段에 不過하다. 모든 学科目은 政治的 이데오르기와 目的을 充実하게 反映하고 있다. 그中에서도 歷史, 地理, 国語 等은 政治的 性格을 가장 두드러지게 表現하고 있는 科目들이다. 北韓은 歷史를 中心으로 国語, 地理, 社会 等을 通하여 共産政治에 対한 正統性과 歷史的 必然性을 立証하고, 그들 支配権力의 統治에 対한 各分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歷史的인 事実을 歪曲 또는 捏造하여 가르치고 있다.

北韓이 歷史的인 事実을 捏造하거나 歪曲하여 敎育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事実이다. 그러나 이떠한 歷史的인 事実을 어떻게 捏造 또는 歪曲하고 있는지에 対하여 具体的으로 밝힌 研究 結果는 아직 없다.

本研究는 大端히 制限点을 갖기는 하지만 歷史 科目을 中心으로 한 分析을 通하여 北韓이 우리의 歷史的인 事実을 어떻게 捏造 또는 歪曲하여 자라나는 世代에게 敎育하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다른 客觀的인 情報에 一切 接할 수 없는 統制된 北韓 地域에서 자라나는 世代가 이같이 捏造 또는 歪曲된 歷史를 배우고 나아가서 우리의 歷史를 그릇된 方向에서 理解하도록 敎育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民族 再結合과 統一을 위해 실로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本硏究는 北韓이 歪曲 또는 捏造하여 자라나는 世代에게 敎育하고 있는 歷史的 事実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에 対備하기 위한 우리의 対策을 마련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硏究의 目的을 具体化 하면 다음과 같다.

① 北韓의 우리 歷史 歪曲 또는 捏造 内容 分析

- o 北韓의 国史観 分析
- o 北韓의 歷史 捏造 또는 歪曲의 意図 分析
- o 北韓의 歷史 捏造 또는 歪曲 内容 分析

② 北韓의 歷史 歪曲 敎育에 対한 対備策 마련을 위한 提案

- o 対内(国内)対備策에 対한 提案
- o 対北(直接 北韓 接触)対備策에 対한 提案
- o 対国際 및 隣接国에 対한 対備策 마련을 위한 提案

2. 硏究의 内容

本硏究의 範囲는 敎科書에 反映된 歷史 歪曲 内容을 分析하는 것으로 制限된다. 敎科書 分析의 対象은 政治的 性格을 強하게 表現하고 있는 歷史, 社会, 地理, 国語 等이 主가 된다.

이와같은 敎科書 分析은 敎科書 内容中 우리의 歷史와 関聯된

記述 内容만을 対象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教科書에 表現된 歷史 内容의 理解와 分析을 깊이 하기 위하여 北韓의 国史観 分析을 先行시킨다.

北韓의 歷史観이나 国史観의 分析은 教科書에 断片的으로 記述된 歷史的 事件이나 事実을 깊이 있게 理解 分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歷史를 労動者 農民이 主体가 되어 이룩한 歷史로서 再定立 하고 나아가서 이를 자라나는 世代에게 教育함으로서 共産統治에 対한 正当化를 기하고 있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알려진 事実이다. 그러나 北韓이 우리의 歷史를 具体的으로 어떻게 歪曲 또는 捏造하여 唯物史観의 必然的 法則에 들어 맞도록 만들고 있는지에 対하여는 研究된 바가 없다. 따라서 本研究는 唯物史観과 北韓의 우리 歷史에 対한 史観의 基本 立場에 対한 理解를 先行条件으로 우리 歷史의 歪曲 또는 捏造 事実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우리 歷史의 歪曲 또는 捏造에 어떠한 政治的 意図가 内包되어 있으며, 어떠한 方法으로 捏造, 歪曲된 歷史를 教養, 教育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本研究는 研究 対象으로 包含시킨다.

어떠한 政治的인 目的과 意図가 北韓의 歷史를 歪曲 또는 捏造하도록 하였는가, 우리 歷史의 어떤 部分을 어떻게 歪曲 또는 捏造하고 있는가, 捏造 또는 歪曲된 歷史를 国民들에게 어떠한 方法으로 宣伝, 教養, 教育하고 있는지가 밝혀지면 本研究는 이러한 分析 結果를 土台로 北韓의 이와같은 非正当한 処事에 対備하기 위한 우리의 対策을 마련하기위한 提案을 樹立한다. 本研究는 이러

한 提案 樹立을 위한 論議內容도 研究 対象으로 包含시킨다.

本研究의 內容을 概略하면

첫째, 우리 歷史의 歪曲 또는 捏造 內容을 分析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 歷史의 歪曲이나 捏造하는데 숨어있는 北韓의 政治的인 意図나 目的을 밝히는 것이고

셋째, 歪曲 또는 捏造된 歷史를 北韓이 어떠한 方法으로 国民들과 자라나는 世代를 洗脳하기 위하여 宣伝, 敎養, 敎育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며,

넷째, 北韓의 歷史観이나 国史観의 基本 立場을 밝히는 것이며,

다섯째, 北韓의 歪曲 또는 捏造된 歷史敎育에 対한 우리의 対備策 마련을 위한 提案을 樹立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研究內容의 分析은 主로 北韓의 学校 敎育用 敎科書 分析이 주가 된다.

3. 研究의 方法

本研究는 北韓의 歷史 歪曲 또는 捏造 內容을 北韓의 敎科書를 通하여 分析하는 것이다. 따라서 研究方法은 文献의 蒐集과 分析이 主流를 이룬다.

敎科書는 学校敎育에서 使用하는 全敎材를 分析할 수는 없다. 따라서 政治的 目的과 性格을 比較的 強하게 表現하고 있는 歷史 地理, 国語 等의 敎科書 分析이 主가 된다.

그리고 이와같이 制限된 敎科書만의 分析으로 因한 不充分한 內容을 補充하기 위하여 "歷史学" (北韓이 正史로서 펴낸 国史)의

原典을 援用하여 分析한다.

文献 分析의 対象은 一部 教科書와 北韓의 国史学 原典의 一部가 되지만 歷史 歪曲 内容 自体의 分析은 唯物史観과 北韓의 国史観의 分析 後에 이루어진다.

唯物史観과 北韓의 国史観의 分析을 通하여 歷史 歪曲에 対한 源泉的 素地를 分析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分析 結果를 参考로 하면서 各 教科書에 記述된 歷史 内容을 分析하여 어떻게 歪曲 또는 捏造되었는지를 밝힌다.

各級 各種 教科書에 反映된 歷史 歪曲 또는 捏造 内容을 分析 綜合하여 一般的 結論을 이끌어 낸다. 一般的 結論은 北韓이 어떠한 政治的 意図와 目的下에 우리의 歷史를 歪曲 또는 捏造하여 教育하고 있는가를 綜合的으로 밝히는 것을 意味한다.

우리 歷史의 具体的인 歪曲 또는 捏造 内容의 究明과 이와같은 歪曲 또는 捏造의 숨은 政治的 意図의 分析을 土台로 本研究는 北韓의 이와같은 歷史 歪曲 教育에 対処하기 위한 우리의 国内外的 対策의 마련을 위한 予備的 探索을 試図한다. 予備的 探索이란 対策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可能한 提言의 構想을 말한다.

4. 研究의 制限点

本研究는 北韓의 教科書에 反映된 우리의 歪曲된 歷史 内容을 分析하는 것이다. 北韓이 学校 教育을 通하여 우리의 歷史를 어떻게 歪曲 捏造하고 있는가를 分析하기 위하여는 各種 各級 教科書

및 副 敎材까지도 包含하여 分析해야 한다. 그러다 本研究는 敎科書 중에서 比較的 政治性이 強하게 表現된 歷史, 地理, 国語 等을 中心으로 分析을 試図했다. 따라서 本研究는 이같은 資料의 制限속에서 分析이 이루어진다는 点에서 限界点을 갖는다. 本研究는 이러한 限界点을 카바하기 위하여 唯物史観이나 北韓의 国史観 分析을 先行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先行 分析은 北韓이 펴낸 歷史学 原典 몇권을 参考하는데 그친다.

그리고 歷史란 歷史哲学의 여러 立場에 따라 同一한 事件이라도 달리 解釈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歷史 解釈을 우리의 立場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否定的으로만 批評할 수는 없다. 그러나 北韓의 唯物史観이나 国史観을 厳格히 客観的으로만 批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本研究는 우리 歷史의 立場을 벗어나 北韓의 歷史를 客観的으로만 評価할 수 없다는 点에서 研究의 結果는 一般化에 制限点을 갖는다.

그리고 敎科書에 反映된 歷史 内容이란 断片的인 境遇가 많기 때문에 自然 本研究는 北韓의 歷史 歪曲이나 捏造에 対한 体系的인 分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制限点 代身 本研究는 北韓이 자라나는 世代에게 우리의 歷史를 어떻게 歪曲하여 敎育하고 있는가를 分析하는 長点을 갖는다.

以上에서 指摘했던 制限点들을 充分히 考慮하여 本研究 結果는 一般化되고 解釈되어야 한다.

Ⅱ. 北韓의 歷史觀 分析

本研究의 焦点은 北韓의 教科書에 反映된 歷史 歪曲 内容을 分析하는 데 있다. 教科書에 反映된 歷史 歪曲 内容을 意味있게 分析하기 위하여는 北韓이 採択하고 있는 一般的인 歷史観에 対한 理解가 앞서야 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共産主義 国家가 一般的으로 採択하고 있는 唯物史観에 対한 特徵을 考察하고, 우리의 歷史 解釈에 対한 北韓의 基本立場을 分析한다. 唯物史観에 対한 考察과 北韓의 国史観에 対한 分析을 앞으로 北韓의 歷史 歪曲 内容을 分析하고 解釈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1. 唯物史観의 特徵

1) 唯物史観의 政治的 性格

共産主義 「이데올르기」 自体가 閉鎖的이듯이 唯物史観 역시 歷史를 認識하고 解釈함에 있어서 閉鎖的이다.
唯物史観이란 여러가지 歷史解釈 方法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唯物史観 그 自体에 対한 批判이나 検討는 許容되지 않고 있는 것이 共産主義 国家의 形便이다. 이와같이 唯物史観에 対한 学問的인 批判이나 検討가 禁止되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것에 対한 対答은 한마디로 하기는 어려우나 根本的인 것은 唯物史観 自体가 政治的인 産物이기 때문이다.

共産主義는 唯物史観的 歷史 解釈을 通해서 그들 共産 政治에 対한 必然性과 当然性, 合理性, 優越性을 証明 하려고 한다. 이

렇게 함으로서 그들의 共産 統治에 対한 명분을 마련하고 권력에 대한 正当性을 立証할 수 있기 때문에 唯物史観의 立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는 政治的 性格을 갖게 되는 것이다.

共産主義 国家에서 「이데올르기」를 떠난 学問이란 있을 수 없지만 特히 歷史는 政治性이 가장 強한 分野이다. 歷史야 말로 共産政治에 対한 合理化를 위해 大衆을 説得하는 가장 強力한 道具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共産国家에 있어서 歷史 叙述 및 解釈은 党 伝有의 性格을 가진다. 政治的인 프로파갠다로서 歷史는 派党性이 強調된다.

歷史는 이와같은 政治的 性格 때문에 現在를 基準으로 分析되고 解釈된다. 現在의 共産 政治에 対한 合理化 및 必然性을 立証하기 위하여 過去는 동원된다. 그리고 現在의 共産主義 現実과 理想의 基準에서 過去의 事件은 評価되고 解釈된다. 以上과 같은 歷史의 基本観点은 그대로 唯物史観에 反映되어 있다.

共産主義에 있어서 모든 것(政治, 文化등)은 共産 政治를 위하여 服務하는 道具로서 意味를 갖게 된다. 共産主義 「이데올르기」 自体도 이 「이데올르기」를 産出한 階級의 道具로서 看做하는 것이 共産主義요 唯物史観이다. 따라서 共産主義에 있어서 모든 知識, 学問, 理念 등이 共産党을 위한 道具요 手段으로서 利用되게 된다.

唯物史観은 이와같은 知識의 派党性과 政治性은 가장 잘 반영한다. 党의 「이데올르기」와 党의 利益에 부합 되도록 唯物史観은 歷史를 서술하고 해석하는 「이데올르기」적 道具이다.

2) 唯物史觀의 敎理的 性格

社会 現象을 自然法則과 같은 絶对的인 法則을 가지고 說明해 보려고 Marx는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当時에 알려진 뉴턴의 運動法則, 引力의 法則, 遺伝法則과 같은 自然科学상의 法則과 同一한 客觀 必然的인 社会科学的 法則을 発見 하려고 하였다. 唯物史觀도 이와 같은 自然科学的 法則과 같은 必然的인 法則으로 歷史를 認識하려는 思想이 그대로 反映되게 되었다.

原来 歷史란 過去의 記錄이며 過去의 事件에 对한 判斷 내지 探求의 体系이다. 그러나 Marx는 이같은 歷史에 对한 認識을 버리고, 客觀的인 歷史法則에 따라서 움직이는 必然的인 것으로 歷史을 認識하려고 했다. 勿論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学問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그의 政治的인 「이데올르기」를 合理化 하려는 意図에서 出発되었던 것이다. 共産主義에 있어서 歷史 認識은 歷史的 必然性의 認識이며 그것에 对한 服從의 認識이다.

Marx의 說明에 依하면 生産力과 生産関係의 発展에 依하여 여러 段階의 社会가 나타나다가 최종에는 共産社会에 到達하게 되는바 이것은 歷史的인 必然性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人間意図에 依하여 이 歷史의 수레바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原始 共産社会는 古代 奴隸社会로, 古代 奴隸社会는 中世 封建社会로, 中世 封建社会는 近代 資本主義 社会로, 近代 資本主義 社会는 共産社会로 発展하게 된다. 이와 같은 歷史 発展의 運動속에서 具体的인 歷史가 어떻게 実践 되어왔는가의 解釈과 整理는 곧 그들의 歷史学이 된다.

이와 같이 唯物論에 있어서 역사법칙은 종교 敎理와 같이 절대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唯物史觀的 歷史敎理에 对하여 批判하거나 批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歷史는 唯物史觀的 敎理에 依하여 唯一的으로만 해석된다. 唯物史觀的 敎理에 依해 唯一的으로 해석되는 歷史란 共産党 政治의 必然性과 合理性, 正当性을 立証하고 그들 統治 權力의 名分과 正当性을 마련해 주는 歷史를 말한다.

共産主義에 있어서 歷史는 종교와 같이 敎理的 性格을 갖는다. 唯物史觀的 역사법칙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敎理로 인식 됨으로서 共産主義에 있어서 歷史는 宗敎와 같은 位置를 차지 하게 된다. 이와 같은 宗敎的 位置를 차지한 歷史는 共産主義的 神까지도 創造해 낸다. 党, Lenin, Starlin, 毛沢東, 金日成과같은 共産主義的 神은 唯物史觀的 敎理에 依해 만들어진다. 唯物史觀的 敎理를 透徹히 인식하고 勞動者 大衆을 지도하여 共産革命을 成功시킨 共産主義的 神으로 創造된다.

3) 唯物史觀의 歷史的觀点

共産主義의 基本 敎理로서 唯物史觀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唯物史觀은 經済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歷史創造의 基本 要素라는 믿음의 世界觀이다. Marx는 經済的 生産関係를 下部 構造라고 부르고 이것은 社会生活의 基礎로서 精神的 「이데올르기」의 여러 部分인 上部 構造를 決定한다고 말하였다. Marx의 이와 같은 想定을 基本으로 定立 되었기 때문에 唯物史

觀은 自然 모든 歷史를 經濟 一辺倒의 觀点에서 認識하고 解釈한다.

둘째, 唯物史觀은 歷史를 階級闘爭의 記錄으로 보는 史觀이다. Marx는 生産力과 生産関係의 発展 段階에 따라 人類 歷史를 몇 段階로 区分 하였다. 그리고 各 段階에 따라 支配 階級과 被支配 階級의 対立 闘爭 過程을 歷史의 전부로 보았다. 따라서 階級間의 協調나 団合을 通한 歷史란 原則的으로 唯物史觀에 依하여 排撃된다. 奴隷와 奴隷 所有者 階級間, 農奴와 封建 領主間, 労動者와 資本家 階級間의 階級 闘爭은 곧 生産手段의 所有関係에 基因된 것이며 同時에 人類 歷史의 전부라고 보는 것이 唯物史觀이다.

세째, 唯物史觀은 根本的인 社会改革은 暴力과 実力에 依해서만 可能하다고 믿는 歷史觀이다. Marx는 根本的인 社会 変革은 오직 暴力 革命에 依해서만 可能하다고 주장했다. 歷史 発展에 있어서 暴力 革命은 가장 重要한 要素로서 看做된다. 奴隷社会가 封建社会로, 封建社会가 資本主義 社会로, 資本主義 社会가 共産主義 社会로 発展되는 것은 오직 革命的인 変化에 依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唯物史觀의 立場이다.

네째, 唯物史觀은 共産主義 革命에 있어서 厳格히 訓練된 職業的 革命家의 指導가 절대적이라는 仮定을 받아드리는 歷史觀이다. 이러한 仮定은 Lenin에 依하여 添加된 것이지만 共産主義者들의 歷史 解釈에 있어서 重要한 武器로 使用되고 있다. 世界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共産 革命의 敗北는 이러한 歷史 解釈法에 依하여

合理化 된다. 즉 共産主義 理論에 依하면 共産革命은 必然的으로 勝利에 到達하게 되어 있으나 実際에서는 敗北의 境遇가 자주 発生한다. 이와 같은 失敗는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공산당원의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합리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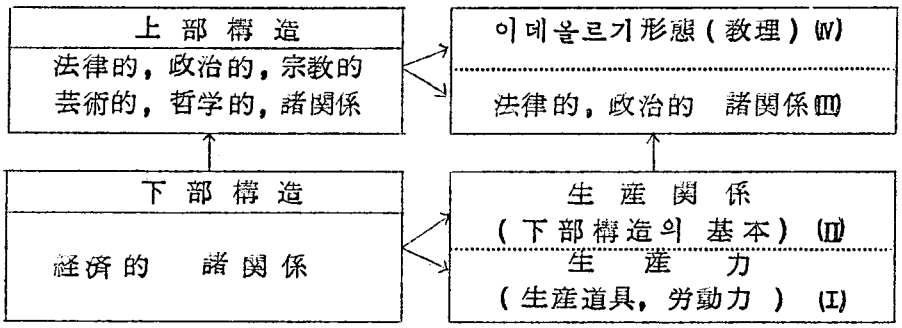
以上에서 指摘한 唯物史觀의 基本 仮定을 項目別로 考察한다.

(1) 経済 為主의 歷史觀

人間이 物質을 生産하고 分配하는 方法 即 生計를 維持하는 方法이 궁극적으로 人間의 思考나 行動을 決定한다고 Marx는 말했다. 人間의 生計를 維持하는 方法을 Marx는 넓게 経済라 부르고 이 経済는 法律, 政治, 宗教, 芸術 等의 모든 人間의 精神文化에 영향을 미치는 基本要素라고 主張했다. 이와 같은 Marx의 思想은 唯物史觀의 核心을 이룬다. 따라서 唯物史觀은 経済라는 立場에서 人間의 歷史를 認識하고 解釈한다. 経済構造를 土台로 社会構造를 把握하며, 経済関係 変化에 따른 人間 歷史의 変化를 分析하게 되는 것이 唯物史觀의 立場이다.

Marx는 社会構造를 説明함에 있어서 経済를 下部構造라 했고, 法律的, 政治的, 宗教的, 芸術, 哲学的 諸関係를 上部構造라고 했다. 그리고 下部構造는 上部構造의 어떤 変化를 決定하는 根本 要因이라고 했다.

<表-1> 社 会 構 造



Marx에 依해 주장된 社会構造를 要約하면 보헨스키가 整理提示한 <表-1>과 같다. Marx는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経済関係의 基本要素로서 生産力과 生産 関係를 重視했다. 生産力이란 土地, 資本, 生産道具 等 一切의 生産手段과 労動力을 包含한다. 그리고 生産関係란 生産 過程에 있어서 自然뿐만 아니라 人間 相互間에 있어서 맺어지는 関係를 意味한다.

生産力과 生産関係는 相互 密接하게 関聯되어 一定한 生産様式을 形成한다는 것이다.

Marx에 依하면 生産関係中 生産手段의 所有関係가 経済関係를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라고 한다. 그리고 生産手段의 所有関係는 人間 任意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客観的 物質的 条件下에서 必然的으로 決定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客観的 物質的 条件이란 生産手段 즉 生産力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한 時代의 生産力(I)이 変化하면 生産関係(II)도 따라서 変化하고 生産関係가 変化하면 上部構造(III과IV)가 変化하여 社会構造가 全般的으로 変化된다는 것이다. 下部構造가 変化하면 上部構造가 変化된다는 것

은 人間은 根本的으로 一定한 生産力과 生産関係, 즉 生産様式에 適応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와 같은 社会 現象에 対한 基本的인 생각을 取하는 唯物史観은 自然 歷史를 経済 一辺倒에서 分析하도록 만들고 있다. 唯物史観은 歷史를 通하여 共産主義 理想을 実現하기 위하여 生産様式이 人間生活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発達해 왔는가를 分析하고 解釈하는데 焦点을 둔다. 이러한 歷史的인 分析과 解釈은 終局的으로 共産主義를 合理化하고 必然化하는 目的으로 많이 利用되고 있다.

(2) 階級闘争의 歷史観

歷史를 階級闘争의 記録으로 보는 立場도 根本的으로는 経済가 歷史 発展의 基本要素라고 보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Marx 는 歷史를 階級의 発展을 根本的으로 招来케 하는 物的 条件 面에서 보려고 했다. 支配階級이란 生産手段을 所有하는 階級이며 被支配 階級이란 주로 支配階級에게 고용 당하거나 労動을 팔아서 生計를 維持하는 階級이다.

Marx 에 依하면 農業的条件 (生産力) 은 不可避하게 農民 階級과 封建領主 階級을 만들어 냈으며 封建領主는 土地 (生産手段) 를 所有함으로써 支配 階級이 되었다는 것이다.

貿易이나 財政의 増大는 近世에 이르러 새로운 形態의 階級을 出現시켰다. 즉 商業上 利益을 追求하는 商人階級을 出現시켰다.

商人階級은 封建貴族과 闘争하여 終局에는 勝利하였다.

産業革命이 일어남에 따라 商人 階級은 工場 所有主, 또는 資本

家로 되고 農地없는 勞動者, 資本이 없는 職工들은 「프롤레타리아」 階級으로 転落되었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맑스는 生産手段의 所有関係로 因하여 階級의 出現은 不可避한 것으로 보았고 同時에 階級間에는 経済的 利害関係가 相反됨으로 対立 闘争이 不可避한 것으로 보았다.

以上과 같은 立場때문에 唯物史観은 歷史를 闘争의 記錄으로 보려고 한다.

<共産党 宣言>에서는 階級闘争에 対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従来에 있었던 모든 社会의 歷史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組合의 頭目과 工匠, 한마디로 말해서 抑圧者와 被抑圧者는 언제나 대립하며 어떤 경우에는 암암리에, 또 어떤 경우에는 공공연히 끊임없이 투쟁한다. 그 투쟁은 전사회의 혁명적 개조로 끝나거나 또는 투쟁하는 계급의 공동적 몰락으로 끝난다."

人類는 이같은 闘争을 계속하여 오고 있으나 이는 生産関係의 矛盾에 依하여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関係의 矛盾은 根本的으로 革命에 依해서만 解決될 수 있다는 것이 共産主義의 想定이다. 여기서 革命이란 搾取 階級과 支配 階級을 打破하고 모든 生産手段을 「프롤레타리아」의 전 인민적 共同 所有化하고 共同経営化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共産主義의 想定은 唯物史観에도 그대로 反映되어 있다.

唯物史観은 人類 歷史를 不可避한 階級闘争의 記錄으로 볼 뿐만 아니라 生産関係의 矛盾을 根本的으로 解決하여 人間의 闘争을

종식시키는 길은 오직 共産主義가 勝利해야 된다는 必然性을 立証하는 方向으로 歷史를 認識하려고 한다.

(3) 暴力革命을 信奉하는 歷史觀

客觀的 物質的 条件에 依하여 支配 階級과 被支配 階級이 自然的으로 形成되지만 一但 形成된 階級은 더욱더 両極化되면서 対立的으로 存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階級의 対立은 経済的 利害 関係의 相反으로 因한 것이기 때문에 自然的으로는 消滅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階級의 対立이 消滅되기 위하여는 暴力에 依한 革命이 不可避 하다는 것이다. 暴力에 依한 革命은 大多数 階級인 「프롤레타리아」 또는 被抑圧者, 被支配者 階級이 資本家, 支配者 抑圧者 階級을 打破시키고 勝利하는 것을 意味한다.

Marx 에 依하면 革命은 階級闘争의 不可避한 結果이며 革命없이 根本的인 社会変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資本主義 国家는 「브르죠아지」独裁이기 때문에 支配 階級으로서 「브르죠아지」의 搾取, 抑圧의 힘은 자연히 무너지지 않으며 무너지더라도 復活을 노리는 만큼 「브르죠아지」의 根本的 打倒와 「프롤레타리아」의 永遠한 解放을 위해서는 暴力 革命에 依하여 階級 権力을 「프롤레타리아」가 탈취해야 하며 経済 및 社会 전반에 対한 根本的인 改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唯物史観은 이와같은 立場에서 過去의 歷史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恒常 被支配者 階級인 労働者, 農民, 奴隷의 立場에서만 歷史를 보려고 한다. 따라서 歷史는 이들 被支配 階級으로서 労働者 農民

이 그들의 支配階級에 対하여 어떻게 闘争하여 왔는가에 대한 記錄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이러한 闘争 記錄은 暴力 革命이란 觀点에서 評価되고 解釈된다.

(4) 職業的 革命家 (共産党) 觀点의 歷史觀

共産 革命이 成功的으로 成就되기 위하여는 小 Group 의 訓練받고 그것에만 従事하는 職業的 革命家의 指導를 通해야만 한다고 Lenin (1870-1924) 은 주장했다. Marx 는 革命이 스스로 생각하고 行動하는 労動者의 自然 발생적 行動으로 일어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Lenin 은 이와는 반대로 自然 발생적인 革命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階級 意識이 미약한 労動 大衆은 少数의 精鋭 職業 革命家에 依하여 指導되고 善導되어야 革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共産党 組織의 硬固性과 行動강령, 指導性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와같은 前衛党論的 Lenin 의 주장은 唯物史觀에도 反映이 되어 있다. 原来 唯物史觀이 Marx 에 依해 提示될 때에는 이와 같은 前衛党的 思考가 들어 있지 않았지만 Lenin 以後 이것이 共産主義의 重要한 原理로 登場함과 同時에 反映되게 되었다.

過去에 있었던 労動者 農民의 闘争과 革命이 失敗한 原因이 職業的 革命家나 透徹한 共産指導者의 指導가 없었다거나 労動者 農民의 階級의식이 미약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의 歷史解釈的 合理化는 모두 唯物史觀에 前衛党論的 Lenin 의 생각이 浸透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직업적 혁명가적 관점의 歷史觀은 한마디로 共産党이라

는 観点의 歷史観이라고 말 할 수 있다.

以上에서 唯物史観의 歷史的 基本観点과 特徵을 살펴 보았다.

唯物史観의 歷史的 基本観点은 첫째, 経済 위주로 歷史를 보려는 点, 둘째. 階級 闘争의 過程으로 歷史를 보려는 点, 세째, 暴力革命의 観点에서 歷史를 보려는 点, 네째, 共産党이라는 観点에서 歷史를 보려는 点으로 集約 될수 있다. 그리고 唯物史観은 그것이 学問的이라기 보다는 共産政治에 対한 「이데올르기」를 合理化 하려고 만들어낸 教理的 性格의 歷史観이기 때문에 現在 共産政治에 対한 歷史的 必然性과 合理性, 正当性을 立証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現在 共産 統治에 対한 名分과 政治的 正当性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의 歷史를 創造한다. 이같이 唯物史観은 처음부터 政治的인 意図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歷史를 歪曲 또는 捏造할 可能性을 가지고 있었던 教理的이고, 絶対的이며, 閉鎖的이며, 政治的인 歷史 解釈의 한 方法이다.

2. 北韓의 国史観 分析

歷史学이 政治 目的의 実現을 위한 道具로서 利用된다는 것은 共産主義 国家의 一般的인 現実이다. 北韓도 例外일 수는 없다. 오히려 共産圏 어느 独裁 国家보다도 徹底하게 그리고 計劃的으로 歷史를 政治 目的에 利用하고 있는 것이 北韓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 政治的 立場을 떠나 歷史를 記述하고 解釈한다는 것은 想想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北韓의 歷史 記述의 基本立場은 唯物史観이다. 北韓이 唯物史観을 歷史 記述의 基本 立場으로 択하는 까닭은 唯物史観 自体가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잘 代弁해 주는 政治的 派党的 性格의 歷史観

이라는 데에 있다.

唯物史観은 앞節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学問的 또는 客観的으로 不偏不党한 歴史観이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共産 政治에 対한 合理化를 目的으로 出発한 派党的, 政治的 歴史観이다. 共産主義가 이같이 政治的이며 派党的이며, 閉鎖的이고 必然的인 唯物史観을 歴史観으로서 択하는 것은 共産主義 <이데올로기>自体의 閉鎖性, 必然性, 絶対性 때문에 不可避한 것이다.

唯物史観이라는 合理化를 通하여 北韓은 거의 恣意的으로 政治的 意図를 우리 歴史 記述에 反映하고 있다. 歴史가 하나의 科学으로서 定立되느냐는 우선 歴史的 事実을 얼마만큼 本来 모습대로 客観的으로 記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客観的 歴史記述은 처음부터 政治的인 偏見에서 歴史를 認認하기 때문에 不可能하다.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著作物을 通하여 北韓의 唯物史観的, 国史観의 政治的 意図와 目的이 무엇인지를 分析하여 본다.

① 李羅英, 朝鮮民族解放闘争史, 北韓平壌; 平壌市刊行, 1958

② 北韓 <科学院 歴史研究所>, 朝鮮通史, 平壌; 1958 (中, 下) 上은 (1956)

③ 北韓, 朝鮮歴史, 平壌; 東平壌印刷工場, 1962

以上의 著作들은 北韓이 解放 以後 펴낸 国史著作物中에서 代表的인 것들이며 同時에 大学 및 一般 教育機関에서 教材로 널리

使用되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主로 이같은 著書를 通하여 北韓의 国史観에 対한 分析을 試図한다. 이와 같은 著作을 通하여 反映된 北韓의 国史観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의 要約은 筆者의 主観이 많이 作用하였음을 밝혀 둔다.

1) 北韓은 平和 愛護的인 民族史를 闘争과 暴動 戦争中心의 歴史로 塗色하였다.

<朝鮮歴史>는 <9세기 신라에서의 농민 폭동>,<평안도 농민전쟁>등과 같은 폭동, 투쟁의 用語를 直接 使用하여 題目을 設定한 内容만도 総64節 가운데 12個節이나 된다. 참고로 <朝鮮歴史>에서 節의 題目을 例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第4章第3節, 9세기 신라에서의 농민폭동

第6章, 12세기 社会경제적 모순의 장성, 농민 폭동의 앙양

第6章1節, 12세기전반기 서북지방 인민들의 폭동

第6章2節, 무신정권의 출현, 농민폭동의 전국적 앙양

第10章3節, 조선왕조 중앙집권적 봉건제제의 강화, 함경도 농민전쟁

第11章2節, 유민 무장단의 투쟁

第15章2節, 계급적 모순의 격화와 인민들의 투쟁

第16章2節, 평안도 농민전쟁

第16章3節, 진주를 비롯한 각지에서의 농민 폭동 앙양

第18章3節, 일본 및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第18章3節, 임오군인 폭동

第20章3節, 갑오농민 전쟁

(※ ㅡ은 筆者가 붙임)

戰爭史가 아닌 国史를 이와 같이 暴動, 闘爭, 戰爭 中心의 歷史로 塗色한 까닭은 무엇인가? 果然 우리 民族이 北韓이 記述한대로 戰爭, 闘爭, 暴動을 즐겨온 民族인가?

우리 民族이 平和 愛護의 民族이었다는 것은 우리 国史가 잘 밝혀준 事実이기 때문에 더以上 言及하지 않겠다. 勿論 우리 国史上 外侵을 当하여 民族이 抗戰했던 일은 많이 있다. 그러나 侵略을 위하여 戰爭을 일으켰던 例는 거의 없다. 그리고 対內的인 面에 있어서도 農民들이 反乱을 일으키거나 暴力을 手段으로 해서 統治權力에 対抗했던 歷史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歷史가 暴力, 暴動, 戰爭等의 武力的 闘爭을 中心으로 이루어진것 처럼 北韓이 国史를 叙述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政治的인 目的 때문이다.

이같은 闘爭中心의 国史기술은 앞서 唯物史観에 対한 考察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人類 歷史를 階級 闘爭의 過程으로 立証함으로써 現在 그들이 主張하고 있는 階級闘爭을 合理化해보고자 하는 北韓의 意図가 歷史 叙述에 反映된 것으로 解釈된다.

2) 支配層 中心의 王朝史를 排撃하고 被支配層인 民衆為主의 国史를 記述하였다.

民族 大衆의 実生活을 中心으로 歷史를 보려는 立場은 政治史를 中心으로 支配 構造 中心의 歷史만을 重視했던 過去의 傾向에 比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드려 진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歷史觀의 傾向에 힘입어 民族 大衆의 実生活을 中心으로 国史를 記述하려는 것으로 보아서는 誤解이다. 北韓이 民族 大衆의 立場에서 国史를 보려고 했던것은 오직 唯物史觀的 立場때문이다. 支配 階級인 王과 貴族은 모두 搾取 階級으로 몰아 버린다. 三国時代, 統一新羅, 高麗, 朝鮮時代를 通하여 업적을 남긴 왕과 귀족에 対하여는 그들이 搾取 支配 階級이었다는 理由로 해서 歷史 記述에서 除外 되어 버렸다.

이와같은 北韓의 歷史 記述의 立場은 支配層과 被支配層의 二元的 歷史의 要素를 無視하고 一要素만을 지나치게 強調함으로써 歷史 歪曲의 과오를 不可避하게 범하도록 하고 있다.

3) 北韓은 農民 労働者를 歷史 発展의 主体로서 내세우는 反面 貴族層의 업적은 排撃한다.

王朝 中心의 政治史의 主体는 역시 王과 貴族層이었다. 이와같은 王과 貴族層의 歷史를 排撃하다 보니 自然 歷史의 主体는 相対的으로 被支配層인 民衆이 되지 않을 수 없다. 古来로 農業国인 우리나라는 民衆이래야 農民일 수 밖에 없다.

우리 歷史上 農民이 政治에 參与한 일은 別로 없다. 또한 王朝中心의 歷史를 가진 우리나라가 農民 生活 中心의 記錄이 풍부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역사의 形便이다. 이와같은 우리 歷史를 階級闘爭의 立場에서 農民을 歷史의 主体로서 보려고 하니 極히 部分的이고 지엽적인 農民들의 反乱 이나 동요를 지나치게 強調하는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北韓의 우리 역사 기술이다.

이와같이 農民들의 폭동, 투쟁, 혁명을 歷史 發展의 原動力으로서 강조하려는 北韓의 역사기술의 立場은 그들의 暴力 革命論을 合理化 시키고 「프롤레타리아」의 革命 闘爭 의식을 고취 시키려는 데에 그 政治的인 目的이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北韓은 対外 抗爭의 歷史를 通하여 民族主体意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民族主体性을 強調하는 立場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歷史的인 事実을 과장 또는 歪曲해 가면서까지 이루어 져서는 困難한 問題이다. <朝鮮歷史> 204 페지에서 三別抄의 乱에 対하여 言及한 内容을 引用하면

" …… 삼별초의 항전은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원수들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강인성과 대담성, 단결력과 희생성을 떨침으로써 몽고 침략자들로 하여금 전률케 하였으며 그후 몽고는 감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침략할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밑줄은 필자)

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民族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強調한 나머지 歪曲된 하나의 例가 될 것이다.

三別抄의 抗戰은 그야말로 民族의 主体性과 団結力을 과시할 것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三別抄의 抗戰 때문에 蒙古가 감히 高麗에 侵略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歪曲 내지 誇張됨이 있다 하겠다. 当時 蒙古가 高麗에 武力 侵略을 그만둔 理由는 三別抄의 抗爭 때문이라기 보다는 高麗가 蒙古와 講和를 맺음과 同時에 精神的으로 継続해서 抵抗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妥当한 것이다.

北韓은 高句麗의 対隋 戰爭 및 対唐 戰爭, 壬辰倭乱 等을 通하여 民族의 主体性을 크게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이 民族 主体性을 強調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여기에는 北韓 대로의 政治的 意図가 숨어 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北韓이 이와 같은 対外 抗爭의 歷史를 通하여 民族 主体性을 強調한 것은 直接的으로는 金日成 一党의 <抗日 闘爭>과 우리의 歷史를 연결 시키려는 데에 그 意図가 있다. 金日成의 主体的이며 能動的이며 빛나는 抗日 闘爭은 壬辰倭乱과 같은 높은 闘爭 精神과 伝統을 이어 받은 것임으로 金日成의 抗日 闘爭은 모든 人民大衆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기 위한 政治的 意図가 北韓으로 하여금 역사 서술에서 主体性을 강조케 한 원인이라고 판단 된다.

이 같은 国史 기술의 立場은 그들이 挑発한 6.25에 対하여도 適用되였다. 北韓은 6.25를 壬辰倭乱과 같이 <祖国解放戰爭>이란 개념으로 規定하고 그들은 金日成을 中心으로 전 民族이 大国団結하여

美帝에 強点 当한 南半部를 解放하기 위하여 主体的으로 싸워 勝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北韓이 民族主体性을 強調하여 歷史를 記述하는 데에는 그들 대로의 政治的 理由가 있다.

5) 北韓은 近代史에 비중을 두고 취급하되 共産党과 金日成의 活動 中心으로 記述하고 있다.

<朝鮮民族解放闘争史>는 1860代로 부터 解放까지의 近代史를 取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西欧와 日本 帝国主義의 侵略과 이에 対한 民族의 闘争을 取扱하고 있다. 北韓은 이같은 民族 闘争의 歷史를 어떠한 立場에서 取扱하고 있는가? 結論부터 말하면 北韓은 資本主義 내지 帝国主義에 対한 民族의 闘争을 金日成을 中心한 共産党의 闘争으로 塗色하여 記述함으로서 全民族的이기 보다는 派党的이며, 個人的인 歷史로 우리의 近代史를 造作하고 있다. 이와 같은 造作의 意図는 <朝鮮民族解放闘争史>의 序文을 通하여 잘 表現되고 있다.

" 1860년대로 부터 8.15해방에 이르는 약 80년간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조선 인민의 영광스런 민족 해방 투쟁의 역사는 복잡하고 그위에 자료의 탐구 정리가 불만족한데서 우리의 미해결 문제들이 허다하게 남아 있다. 더우기 이런 조건을 이용하여 지난 기간 최창익(崔昌益)등 기타 일부 반당(反党)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의 추악한 종파적 목적으로 부터 출발하여 이부분 역사 연구에 만은 歪曲과 해독을 끼쳐 놓았다.

그들은 해방전 조선노동운동에서 종파가 끼친 해독을 음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이를 조선인민의 〈혁명전통〉으로 분석하려 하였고, 다른 한편 김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조선 인민의 혁명 전통을 歪曲, 과소평가, 말살하려 하였다. "

"우리가 過去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 혁명을 옳게 수행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개된 노동운동과 민족해방 투쟁의 역사를 신중히 연구하며, 우리나라 혁명의 경험과 교훈으로 당원들에게 교양하여야 합니다. "

以上의 引用文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49年 刊의 執筆者의 한 사람이며 政治的 実権者의 한 사람이었던 崔昌益 等은 反党 宗派 分子로서 金日成 一派에 依한 抗日 革命 伝統을 歪曲, 또는 過少評価, 抹殺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1958年에 새로이 〈解放闘争史〉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冊이 나온 1958年 頃에는 北韓에서 重要한 政治的 変動이 있었던 直後라는 데에 注目해야 한다. 崔昌益은 1954年에는 北韓 〈財政相〉에, 1955年에는 〈国家〉 検閲相 兼 〈副首相〉까지 지낸 바 있는 政治 実力者 이었다. 그러나 尹公欽, 徐輝 等과 金日成 政権을 顚覆하려다 발각 되어 1956年 8月 이들과 함께 숙청된 人物이다.

이 事件과 関聯하여 또 한가지 注目해야 할 것은 1956年 以後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하여 〈革命 伝統〉 교양이란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전 인민적으로 교양할 것을 共産党 3次大会에서 決

定한 後라는 것이다.

이같은 政治的 状況은 〈解放闘争史〉에 그대로 反映되어 들어갔다.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하여 北韓은 1931年에서 解放까지의 抗日運動은 金日成 個人의 活動으로 集中시킴으로서 우리의 近代史를 捏造하고 있다. 北韓은 이때의 民族陣営의 海外 및 国内에서의 光復 活動은 전혀 度外視하는 反面 金日成을 中心한 共産党 一部의 活動만을 強調한다. 그리하여 北韓은 우리의 解放을 위대한 〈쏘비엣 군대〉에 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金日成 지휘하에 조선 인민혁명군의 고국 개선으로 이루워진 것이다라고 結論 짓고 있다.

6) 北韓은 近代時代의 西欧 및 日本帝国主義의 侵略에 対한 民族의 闘争을 社会主義 労動運動으로 塗色하였다.

北韓은 3.1運動 以後에는 소련의 영향하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어 적극적인 抗日 武力闘争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以後 民族闘争을 共産党 活動 中心의 闘争 歷史로 近代史를 塗色하려고 한다.

그리고 3.1運動 以前의 民族 抗争도 주로 労動者 農民의 罷業暴動만을 取扱하여 종교界 지도자나 知識層의 抗日 活動을 無視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 〈解放闘争史〉의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전파〉라는 제목에서 引用한 例文을 보면 3.1운동 이전의 민족 투쟁을 노동자 농민의 투쟁으로 도색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아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10월 혁명과 「맑스·레닌」주의 보급의 영향하에서 그 투쟁적 진출이 적극적이었고 투쟁 규모도 비교적 컸다. 뿐만 아니라 파업 투쟁이 거의 일본인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진행되었고 또일제 경찰의 직접적 간섭과 탄압을 반대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치적 성격을 띠고 완강하게 전개되었다.

또 선진적 노동자들과 「인테리」들은 원수들과 보다 더 성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대에 들어서면서 각지에서 노동 단체들이 우후 죽순처럼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pp261 ~ 270) "

"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운동은 3·1운동 이후 「맑스·레닌」주의 전파의 영향하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그 주류로 하는 광범한 반일 대중운동으로서 급속히 장성 발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p270)

이 같은 역사기술의 의도는 3·1운동 後의 共産党의 創建을 위한 社会主義的 条件의 成熟을 내세우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社会主義的 社会条件의 成熟으로 말미암아 共産党의 創建과 活動은 必然的이라는 論理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7) 北韓은 儒, 仏, 仙 等 宗教 및 宗教界 指導者들의 역사적인 영향을 観念論으로 일축하는 反面 実学者등을 唯物論者로 크게 내세우고 있다.

<朝鮮歷史>에서 이러한 歷史 記述의 例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代表的인 例를 들어보면 北韓은 実学派에 属했던 「星湖僿説」의 作者 李瀷에 対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이익은 유물론적 입장으로 부터 출발하여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일체 허황한 종교적 교리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 하였으며,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 졌으며,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이익은 이러한 선진적 사상으로 부터 출발하여 봉건적 사회제도를 개혁할 사회개혁안을 제시 하였다." (同書 p.136)

여기서 잠간 살펴보자. 李瀷이 오늘날 歷史에서 重要視되는 理由는 그가 唯物論者로서 先進 思想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当時의 일반 学界의 風潮였던 朱子学의 空論을 배격하고 民衆의 実生活과 관련시켜 実学 探求의 体系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宗教에 対하여 批判하였던 것은 宗教를 排撃하는 唯物論者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체의 空論를 排撃하는 立場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北韓이 이와 같이 歷史를 通하여 수 많은 唯物論者를 어거지로 탄생시키고 수 많은 역사상 중요한 영향을 미친 人物들을 観念論者로 몰아 일축하는 意図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역사상 仏教는 三国時代 以来로, 儒教는 고려말 以後로, 기독교는 李朝末以後로 부터 그 끼친 영향이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와 같은 종교적 영향을 観念論이란 이름을 붙여 일축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크게 歪曲하는 非良心的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勿論 이와 같이 観念論的 立場을 排撃하는 理由는 唯物史観의

「이데올기」에 対한 選択的 閉鎖性에 있다. 唯物論에 기초하고 있는 共産主義를 合理化하기 위한 의도 때문에 北韓은 우리 歷史를 觀念論에 対한 唯物論의 투쟁으로 記述하고 있다. 이같은 北韓의 立場은 鄭鎭石, 鄭聖哲, 金昌石 (共著), 朝鮮哲学史, 北韓, 平壤 : <科学院 哲学 研究所>, 1960.의 目次만 살펴 보아도 잘 나타난다. 便宜上 章의 題目만 提示한다.

제 1 장, 고조선 및 삼국시기에 있어서의 종교·관념론에 대한 유물론 철학의 투쟁

제 2 장, 통일신라 시기의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

제 3 장, 고려시기의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

제 4 장, 14세기에 있어서의 조선의 朱子철학과 그 仏教에 대한 투쟁

제 5 장, 15 ~ 16세기 제관념론 조류에 대한 유물론의 투쟁

제 6 장, 17 ~ 18세기에 있어서의 제관념론 조류에 대한 先進的 実学思想家의 투쟁

제 7 장, 17세기 이후의 文理論 및 文気論 철학의 파산과 그것에 반대하는 哲学潮流

제 8 장, 조선에 있어서 봉건제도의 붕괴기와 자본주의 발생기의 철학

이와 같이 있지도 않은 事実을 捏造하거나 針小棒大하여 우리 歷史를 観念論에 対한 唯物論의 闘争 過程으로 北韓이 叙述하고 있는 까닭은 唯物論에 터한 오늘날의 共産主義를 歷史的으로 必然化, 合理化, 妥当化 하자는 데에 있다.

8) 北韓은 唯物史觀에 依하여 우리 歷史의 時代 区分을 図式化하고 있다.

北韓은 우리 歷史의 時代区分을 唯物史觀에 의하여 根拠도 없이 図式化하고 있다. 唯物史觀에 依하면 人類 歷史의 発展은 生産力과 生産関係에 의하여 몇 段階로 区分된다. 生産力과 生産関係는 客観的 物質的 条件으로 因하여 人間의 意図와는 関係없이 必然的으로 決定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人類 歷史도 이러한 経済関係에 따라 必然的으로 原始共産社会, 古代 奴隷制 社会, 中世 封建社会, 近代 資本主義 社会를 거쳐 共産社会에 到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歷史 発展의 図式은 批判할 여지도 없이 共産主義를 歷史的으로 必然化시키고 合理化 시키는데 그 意図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北韓은 이같은 唯物史観的 歷史 発展의 図式에 따라 우리 역사를 다음과 같이 時代 区分을 하였다.

① 原始史 (原始共産社会) : 史前史부터 紀元前 5 世紀까지

② 古代史 (古代奴隷制社会) : 紀元前 5 世紀부터 紀元前後 古朝鮮·扶余·辰国 (三韓) 時代까지

③ 中世史 (中世封建社会) : 紀元前後 三国의 成立時期부터 19 세기 前期 朝鮮王朝末期의 開港前까지

④ 近世史 (近代資本主義社会) : 19 세기 後期 開港以後부터 解放前까지

이와 같은 北韓의 時代区分이 어떠한 根拠에서 이루어졌는가? 果然 우리 歷史에서 Marx 가 提示한 것과 같이 奴隷制社会, 封

建社会를 거쳐 資本主義 社会로 発展했다는 充分한 歴史的인 증거가 있는가? 唯物史観에 依한 歴史 発展의 時代 区分 図式은 原来 西洋의 歴史 発展 過程을 念頭에 두고 分類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区分法을 盲目的으로 우리나라의 時代 区分에 適用한다는 것은 無謀한 처사이며, 非科学的인 처사이다. 李瑄根 박사가 論議한 方向에 따라 北韓의 唯物史観的 時代区分에 対하여 疑問点을 살펴 본다.

우리 国史学界에서는 三国時代 以前을 古代·奴隷制 社会로 断定을 하지 않고 있다. 古朝鮮의 法禁 가운데에는 절도자를 노예로 삼는 다는 条文이 있고, 扶余에는 殉葬의 風俗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같은 断片的인 史料만으로 奴隷制 社会로 断定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不足하기 때문이다.

三国의 成立期부터 封建時代에 해당시키는 時代 区分은 있을 수 없다.

封建制度의 本質은 封土制와 農奴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는 西洋에서와 같은 典型的인 例를 우리 国史上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三国時代중 고구려는 5個 部族 聯盟体制로 출발 하였고, 신라는 6개 民族 聯盟体制로 부터 출발 하였다.

이들 聯盟体制는 封建制社会의 諸侯들이 아니라 原始的인 民族共同体의 遺俗이 그대로 成長하여 古代 国家로 集約되어 가고 있는 社会体制 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三国의 成立이 古代 国家의 成立은 될 지라도 결코 封建社会의 成立은 아니라는 것을 証明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도 초기를 제외하면 강력한 専

制 君主制의 古代 国家体制로 一貫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国史学界는 대체로 統一신라 以前까지를 古代 国家体制로 보고 있다.

일일이 反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北韓이 唯物史観의 図式에 依하여 無謀하게 우리 歷史의 時代区分을 하였다는 것은 白明하다.

그러면 이와같이 歷史를 歪曲하면서까지 唯物史観的 図式에 依하여 国史를 난도질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말할것도 없이 現在 그들의 共産 政治에 対한 역사적 必然性을 立証하는 데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北韓의 国史記述에 対한 立場을 다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北韓의 歷史観은 唯物史観에 立脚하고 있으며 唯物史観에 立脚한 그들의 歷史観은 政治的 立場을 그대로 反映한 派党的이며 教理的이며 政治的인 歷史 解釈의 立場이다.

解放 以後 北韓이 正史로서 펴낸 <朝鮮民族解放闘争史>, <朝鮮通史>, <朝鮮歷史>等을 通하여 北韓의 우리 国史에 対한 基本立場을 分析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① 北韓은 平和 愛護的인 民族史를 排撃하고 暴力, 暴動, 戦争闘争 中心으로 우리 歷史를 記述하고 있다.

② 北韓은 支配層 中心의 王朝史를 排撃하고 被支配層인 民衆中心의 国史를 記述하려고 하고 있다.

③ 北韓은 農民 労動者를 歷史 발전의 主体로서 내세우려는 반면에 貴族層과 王朝의 業績은 排撃하는 国史 記述을 하고 있다.

④ 北韓은 対外 民族 闘争을 通하여 民族 主体性을 강조하는

方向으로 歷史를 記述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国史 認識의 方向은 바람직하나 그 속에 숨어있는 政治的인 意図는 간악하다.)

⑤ 北韓은 近代史에 많은 比重을 두어 취급하되 共産党과 金日成 活動 中心으로 国史를 記述하고 있다.

⑥ 北韓은 近代의 西欧 및 日本 帝国主義의 侵略에 対한 民族의 抗争을 社会主義 労動 運動으로 塗色하고 있다.

⑦ 北韓은 儒, 仏, 仙 等 宗教 및 宗教界 指導者들의 歷史的인 영향을 観念論으로 일축하는 반면에 実学者등을 唯物論者로 크게 내세워 国史를 기술하고 있다.

⑧ 北韓은 唯物史観에 의하여 우리 歷史의 時代 区分을 図式化하고 있다.

Ⅲ. 北韓의 歷史歪曲 內容 分析

前章에서는 解放以後 北韓이 그들의 <歷史研究所>를 通하여 正史로서 펴낸 国史書籍을 中心으로 이에 反映된 北韓의 国史観을 分析하였다. 이러한 分析을 通하여 알수있는 바와같이 北韓의 歷史観 내지 国史観은 学問的, 科学的이라기 보다는 全的으로 政治的 方向에서 定立된 史観이다. 北韓의 国史観이 이같이 政治的인 方向에서 定立된 것같은 唯物史観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唯物史観이 近世에 定立된 共産主義를 歷史的으로 必然化, 合理化 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서 政治的 目的에서 出発하여 만들어진 歷史観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事実이다. 한마디로 唯物史観은 現在의 共産主義 내지 共産党을 合理化 시키기 위하여 歷史를 再解釈 整理하는 歷史認識 方法이다,

北韓의 国史観이 이같이 政治的 方向에서 定立되었다는 것은 実際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国史観이 共産主義에 對한 歷史法則的 必然性을 立証하고, 現在의 共産統治 権力(共産党)에 對한 名分과 政治的 正当性을 마련하는 方向에서 歷史를 認識하고 解釈 整理하는 歷史観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北韓이 이같은 歷史観의 立場에 서서 우리 歷史를 整理하는한, 過大, 過小評価, 偏向的 歪曲은 거의 不可避한 現象으로 되고 말것이다. 게다가 카리스마적(Charisma) 独裁者를 만들기 위하여 北韓은 事実 無根한 것까지 政治的으로 捏造하거나 歪曲하고 있다.

北韓이 이와같이 政治的인 唯物史觀的 国史觀에 立脚하여 우리 歷史를 記述하고, 이렇게 記述된 国史를 北韓의 住民들과 자라나는 世代에게 教育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앞章에서 分析하여 본바와 같은 北韓의 国史觀이 具体的인 歷史記述을 通하여 어떻게 反映되고 있는지를 分析한다.

北韓이 보다많은 努力을 投入하고 神経을 써서 記述하고 있는 部分은 近世史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近世史를 中心으로 낱낱의 歷史的인 事件을 들추어 어떻게 事件을 기술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낱낱의 역사적인 事件을 어떻게 記述하고 解釈하고 있느냐, 또는 歪曲 捏造하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은 重要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이같은 捏造와 歪曲, 解釈이 어떠한 目的과 理由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를 캐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歷史的 事件에 對한 具体的 記述内容에 對한 分析과 더불어 国史觀의 分析도 때로는 취급한다.

歪曲内容의 分析은 便宜上 初·中等用 歷史教材와 大学 및 一般 教育用 教材의 分析을 나누어 提示한다.

1. 初·中等用 歷史教材 歪曲内容 分析

分析된 역사교과서는 총 7권으로 中級1과 高級2와3을 제외하고는 各級別의 歷史科 教科書는 모두 分析된 셈이다.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社会科의 中核的인 教科인 歷史는 初等学校 水準에 해당되는 人民学校 5学年째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初級5와6은

실상 初等学校 5学年과 6学年에 해당되는 歷史科 教科書이다. 分析된 교과서 총7권중 5개권은 各学年別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이외 "조선역사(상)"과 "조선노동당 역사"의 두권이 高級学年의 교과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의 社会科 教育은 歷史와 地理의 두 科目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과목의 社会科 教育은 初級学年에 있어서는 국어과에 통합되어 있어 별도로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初等5와 6学年에 와서 歷史와 地理를 각각 따로 취급하고 있다.

歷史教育의 目標는 그들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맑스·레닌주의의 붉은 사상으로 무장하고 민족적 긍지를 갖게하며 김일성의 교시를 실천할수 있는 혁명가적 투쟁의욕을 고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歷史教科를 별도로 소개되는 초급5·6 以前의 국어교과에서의 역사교육은 단편적인 事件을 중심으로 北韓共産党의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민의 투쟁과정을 높이 찬양하여 그것이 결국 김일성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뒤에 따로 要略提示 하겠지만, 歷史教育이 独立된 教科目으로 취급되면서 부터는 初·中·高의 各級別로 歷史教育 内容을 달리하고 있다.

즉, 初級에서는 勞動者의 투쟁過程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理念的 對立에 関한 언급은 적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것은 文化創造에서 보여준 우리 조상들의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 향토애와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中級에와서는 19세기 以後의 歷史를 취급하면서 革命闘爭史와 北韓共産党의 創立過整을 重点的으로 다루고 있다. 高級에서는 理念과 思想的인 對立関係를 부각시켜 맑스·레닌主義的 唯物史観, 生産様式의 변천過程을 中心으로 하는 歷史観의 이해를 重点的으로 取扱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이 내세우는 歷史教育의 目的을 소개해둔다.

1) 歷史教育의 目標

앞서 北韓共産党이 의도하는 歷史教育의 目標와 各級別 目標를 간략히 언급한바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그들이 教科書 서두에 명시한 "歷史学習의 内容과 留意点"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 原文 그대로를 여기에 소개해 둔다.

<例 1>

서 론 : 조선력사의 학습내용

소주제 : 조선력사의 학습내용과 유의점

o 조선력사 학습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정신을 심오히 체득함으로써 김일성동지와 우리당 중앙위원회의 사상으로 자체를 더욱 튼튼히 무장하도록 한다.

o 학습내용

① 각 시기의 경제형태와 계급호상관계를 학습,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 파악, 맑스-레닌 주의 이론에 튼튼히 입각하여 연구

② 선조들이 국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운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투쟁모습을 학습

③ 민족문화와 우수한 전통학습

o 학습상 유의점 : ① 력사주의 원칙과 당성의 원칙 (노동계급입장에서 역사 이해)

② 반 맑스주의의 원칙은 철저히 배격

<조선역사, (상). 학우서방 (1963) pp3 - 4 >

<例 2>

주 제 : 조선력사학습의 실천적 의의

o 조선력사 학습은 우리혁명을 주체있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로 큰 의의를 갖는다.

o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 혁명가로 무장시켜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한다.

o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준비된 당의 전사로 되게 함. 인민 대중의 구미에 맞게 능란하게 군중공작을 할 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가로……

o 공산주의 교양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① 낡은 것과 새것의 교체는 투쟁을 통하여야만 이루어짐. 제국주의에 반대투쟁에 적극참여,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함.

② 계급교양강화…착취계급의 본성과 그에 대한 투쟁의 사례

③ 노동에 대한 사랑과 고상한 근로정신 배양

④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선조들의 희생적이며 용감한 모습의 학습

o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더 잘 연구함에 도움

<조선력사(상)학우서방(1963) pp5 ~ 7 >

2) 分析된 目標, 要略

(1) 교과서에 반영된 북한공산당의 사관

① 맑스-레닌주의적 유물사관

② 역사를 생산양식의 변천과정으로 해석

③ 인간은 생산가치를 실현하는 수단

④ 노동자인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주체라는 의식을 고취

시키는 교육

⑤ 노동자 폭동과 혁명을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

⑥ 국가의 주체인 인민은 국가를 지키는 혁명투사임을 인식시킴.

⑦ 공산주의 세계건설을 위한 혁명특사의 사명감 고취

(2) 북한 역사 교육의 특징 및 목적

가. 특 징

(가) 왕조사의 적극 배격

① 지배 체제인 왕과 귀족은 모두 착취계급으로 몰아버림.

② 왕조중심의 지배기구의 형태는 역사에서 완전 소외

③ 삼국, 신라, 고려, 이조를 통하여 업적을 남긴 왕과 귀족들에 대해서 언급 전혀 없음.

(나) 농민 노동자 중심의 역사 서술

① 역사 전개의 주체를 노동자와 농민으로 봄.

② 인민(노동자, 농민)의 투쟁 및 생활상이 중심이 되는 단원 편성

③ 농민 폭동과 혁명을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 이는 공산주의의 기반인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의식을 역사적으로 들어내오기 위함.

(다) 국수주의의 고창

① 인민의 투쟁사례가 상당수의 학습단원을 차지

② 자기네들 사회는 오랜동안의 항쟁끝에 고수하게된 이상 사회라는 신념.

③ 남한 타도를 자극시킴.

(라) 김일성의 업적과 공산당 창립사로 현대사의 전부를 배움.

① 중급학교 2년, 3년, 내용이 모두 김일성이 활약한 이후의 역사를 기술.

② 절대량을 차지한 현대사의 내용은 혁명 투쟁과 당의 업적 기술.

③ 남한을 극렬히 비난, 아전 인수격인 역사해석

나. 목 적

(가) 歷史敎育의 一般的目標

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의 이해

② 혁명적 투쟁의식 함양

③ 계급투쟁과정으로서의 역사 이해

④ 김일성의 교시 이해와 실천능력배양

⑤ 문화유산의 이해와 민족적 자부심 함양

⑥ 외침에 항거한 혁명전통의 계승

⑦ 당의 과업과 국가, 개인의 의무와의 동일시 강화

⑧ 당과 대중과의 유대의식 강화.

⑨ 국가건설의 보람과 희생정신 함양

(나) 계급 교양 강화

① 지배계급은 모두 착취계급으로 간주(귀족과 지주 계급)

② 노동자, 농민들의 지배계급에 대한 항쟁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각시킴.

③ 계급 모순을 의식하게 하고 공산체제를 합리화 시킴.

(다) 반미, 반일 감정 고취

① 외침에 항거한 조상들의 투쟁정신 찬양

② 일제의 착취상 폭로와 반일 감정 고취

③ 남한의 생활고와 남북 분단의 원인이 미제의 침략적 행위에 있음을 강조, 반미 감정의 고취와 반미투쟁의식 함양

(라) 남북한의 북한을 통한 북한의 우월성 고창

① 남한은 못살고 북한은 잘살며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선전,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함.

② 南韓의 혼란상은 제도적 모순과 미제의 야욕 때문이라 선전

(마) 애국주의 교양교육

① 혁명동지 투사, 영웅적 헌신을 대대적으로 기술, 영광화함.

② 국가에의 충성을 최고 가치의 실현이란 교육

예 : 전사한 혁명투사 수기 조작

③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

(바) 김일성에의 충성

① 인민과 국가의 생사는 당의 死活에 매인것.

② 당의 조직, 발전은 곧 김일성의 경력을 의미, 업적 찬양, 영웅화 시킴.

③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까지 영웅화

(3) 各級別의 特徵

그들이 구분하는 初, 中, 高의 級別 歷史敎育 內容의 특징을 요약제시하기로 한다. 初級은 역사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5学年의 것과 그리고 6学年의 것을 합한 2個学年의 교과서 내용, 中級은 中2.3学年의 교과서, 그리고 高級은 高1学年 교과서 내용등에 반영된 특징을 간추려 먼저 제시하고 이어 各級別의 特徵을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重要內容을 병기해 두었다.

가. 初級(5.6学年)

(가) 내용단락 : 고조선에서 4月인민봉기까지를 취급

(나) 특 징 :

① 이념적 색채는 극히 약하고 소박한 애국심, 조국애를 강조 : 향토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갖게함.

② 역사적 연계성을 무시하고 단편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나열.

③ 문화창조에서 보여준 우리조상들의 업적찬양

④ 각 単元의 主題를 아동의 흥미수준에 맞도록 설정.

<예> : ① 初 : 붉은 바지 농민 폭동

高 : 신라에서의 농민 폭동

② 初 : 공주 농민 폭동

高 : 미신정권의 출현과 농민 폭동

③ 初 : 한산도 바다 싸움

高 : 임진 조국 전쟁

나. 中 級 (중2 . 3)

(가) 내용단락 : 19 세기 중엽의 우리나라~4月인민봉기 이후의 남조선의 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까지를 취급

(나) 특 징 :

① 혁명투쟁사를 이해시켜 북한의 정권의 타당성 인식

② 4月인민봉기 이후의 남조선의 정세파악과 조국통일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과정 이해

③ 공산당창립사의 이해와 업적 찬양

④ 공산주의의 사적이해와 공산당창립의 이해

⑤ 역사와 사회의 구분이 없는 역사학습내용

⑥ 사건별 학습단원 설정

다. 高 級 (고1)

(가) 내용단락 : 석기시대부터 19 세기까지의 문화내용 취급

(나) 특 징 :

① 맑스-레닌주의적 사관에 입각한 전반적인 역사흐름의 학습강조

② 역사의 발달을 생산양식의 변천으로 보는 유물사관의 이해

③ 노예→농노의 변천을 고대노예제사회→중세봉건제사회로

풀이.

④ 삼국시대를 포함하는 중세봉건제사회를 역점을 두고 상세히 취급

⑤ 근세의 분기를 실학사상의 대두와 갑오년 농민들의 반봉건투쟁때부터로 풀이.

(4) 南北韓의 比較

歷史教科書内容의 南北韓比較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内容 目次를 병기해보기로 했다. 제시된 목차로서 그 内容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싶이,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初, 中, 高 모두 古代, 三国時代, 高麗時代, 李朝時代, 大韓民国의 수립을 포함하는 近世등의 時代的 区分을 하고 주로 王朝史的 立場에서 歷史변천을 기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北韓의 교과서는 初, 中, 高에서 취급하고있는 内容이 각기 다르다. 初級에서는 古代로부터 近世까지를 취급하고 있으나 王朝史는 除外하고 주로 단편적인 事件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무리하게 파악하려했으며, 文化創造과정에 선조들의 업적을 높이 찬양하여 향토애와 애국심, 조국에 대한 긍지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中級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우 南韓에서는 初級의 것과 마찬가지의 時代的区分을 중심으로 世界속의 韓国을 이해하고 発展的過程에 있는 오늘의 한국을 종적 그리고 횡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内容으로 되어 있으나 北韓의 것은 初級과는 달리 中世以前까지의 内容은 除外하고 19世紀中葉부터 시작하여 革命的闘争過程을 거쳐 북한共産党창립과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内容에 중점을 두고 있다. 高級의 것도 우리의 歷史教材는 初級과 中級의 것과 마찬가지의 時代的区分과 内容과 系列을 취급하면서 다소 深化된것에 비하여 北韓의 것은 生産様式의 변천과정으로 歷史의 흐름을 파악하고 맑스, 레닌주의적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제번안내지 외곡해석하는 内容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南北韓의 歷史教科書를 初, 中, 高로 나누어 그 内容目次를 병기해 두었다.

가. 初 級

南 (사회 6 - 1)	北 (초급 5 , 6)
Ⅰ. 우리나라의 발달	Ⅰ.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1)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1.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생활
<원시인의 生活>	
<고 조 선>	2. 고조선
<그밖의 여러 부족국가>	3. 노예와 노예 소유자
(2) 삼국과 통일 신라의 생활	4. 삼국
삼국의 일어남	5. 조세와 공납
삼국의 겨룸	6. 평양성
삼국의 문화	7. 청천강 싸움
신라의 삼국통일	8. 고구려의 건축과 그림
통일 신라의 발달	9. 백제와 부여성
신라의 쇠망	10. 신라의 금관과 첨성대
	11. 거문고와 가야금
	12. 3국의 통합
	13. 발해
	14. 신라 사람들의 해상활동
	15. 붉은바지 농민 폭동
(3) 고려시대의 生活	16. 고려
고려초기의 발달	17. 구성싸움
귀족들의 정권다툼	18. 양반과 농민

南 (사회 6 - 1)	北 (초급 5 , 6)
몽고의 침입과 고려의 쇠망	19.공주 농민 폭동
고려의 문화	20.3별초군의 싸움
(4) 조선시대의 생활	21.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초기의 발달	22.고려자기
양반들의 권력다툼	23.서울건설
일본과 청의 침입	24.15세기 농업기술의 발전
새로운 제도와 문화	25.우리 글자의 발명
사회의 혼란	26.15세기 음악의 발전
근대사회로의 발전	27.한산도 바다싸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김	28.진주성싸움
	.29실학
	30.평안도 농민폭동
(5) 대한민국의 발달	1) 자본주의 나라들의 침입을
<우리민족의 독립정신>	반대하는 투쟁
<대한민국의 수립>	1.셔만호사건
<6.25 사변과 그후의 부흥>	2.광성진의 영웅들
<민주국가의 발전>	3.김옥균과 갑신정변
Ⅱ. 민주주의와 정치	4.갑오 농민 전쟁
(1) 민주주의 근본정신과 그 발달	5.홍범도 의병대장
(2) 민주정치와 삼권분립	2) 3.1운동과 노동자 농민운동
(3) 공산 독재정치의 실패	6.3.1운동
(4)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있어서	7.해방전 노동자 농민들의 형편

南 (사회 6 - 1)	北 (초급 5 , 6)
의 민주주의	8.원산노동자들의 총파업
(5) 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일	9.단천 농민 폭동
Ⅲ. 새로운 문화생활	10.광주학생사건
(1) 우리나라의 고유문화	3) 김일성원수님과 유격대의 활동
(2) 우리문화의 발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3) 세계문화의 발달	5) 조국해방 전쟁
(4)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나. 中 級

南 (중, 사회Ⅱ : 역사 김성근)	北 (중 급 2 , 3)
Ⅰ. 우리역사의 시작	제 1 장 : 자본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근대개혁운동
(1) 우리민족의 원시생활	제 1 절 : 19세기 중엽의 우리나라
(2) 우리나라의 건국	제 2 절 : 미국과 프랑스 함대의 격퇴
(3) 부족국가의 발전과 사회생활	제 3 절 : 1882 군인폭동
1) 부족국가의 발전	제 4 절 : 갑신정변
2) 부족국가의 생활	제 5 절 : 1894 농민폭동
Ⅱ.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생활	제 2 장 : 반일의병 투쟁과 3.1 인민봉기
(1) 삼국의 형성과 발전	제 1 절 : 반일의병투쟁
(2) 삼국의 대외관계와 신라의 삼국통일	제 2 절 : 애국문화 정치운동
1) 삼국의 대외관계	
2) 신라의 삼국통일	

南 (중, 사회 II : 역사, 김성근)	北 (중 급 2 , 3)
(3) 삼국의 사회와 문화	제 3절 : 조선국민회의 조직
(4) 통일신라의 사회와 문화	제 4절 : 3 . 1 인민봉기
(5) 통일신라의 대외발전	제 3 장 : 맑스 레닌주의의 보급
(6) 발해와 그 문화	제 1 절 : 1920 년대의 우리나라
III . 고려시대의 생활	제 2 절 : 맑스레닌주의의 보급
(1) 고려의 건국과 발전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
(2) 고려의 제도와 경제생활	제 4 장 : 김일성 원수님 영도하의
(3) 고려사회의 흔들림	항일 무장투쟁
(4) 고려의 대외관계	제 1 절 : 김일성 원수님의 초기
(5) 고려의 쇠망	혁명활동
(6) 고려의 문화	제 2 절 :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IV . 조선시대의 생활	제 3 절 : 조국광복회와 보천교
(1) 조선의 건국과 제도의 정비	전투
(2) 민족문화의 발전	제 4 절 :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
(3) 조선시대의 사회와 경제생활	제 5절 :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
(4) 외적의 침입과 민족의 항쟁	대 활동
(5) 민족의 자각과 문화의 새기운	제 6 절 : 항일무장투쟁의 승리
(6) 세도정치와 농촌사회	제 7 절 :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
(7) 서양세력의 진출과 쇄국정치	명적 문학예술
V . 우리나라의 근대화운동	제 5 장 : 민주기지 창설
(1) 우리나라의 개방	제 1 절 : 해방직후의 국내정세
(2) 근대화운동	제 2 절 : 조선노동당 창립

南 (중, 사회 II : 역사, 김성근)	北 (중 급 2 , 3)
(3) 외세의 침투와 민족의 자각	제 3 절 :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4) 구국운동과 민족의 수난	제 4 절 : 민주개혁
(5) 새 문화운동	제 5절 : 10 月인민항쟁
VI. 민족의 수난과 발전	제 6 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 일본의 침략정치	제 1 절 :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2) 3.1 운동과 민족의 항쟁	제 2 절 : 인민경제의 부흥발전
(3) 민족의 문화활동	제 3 절 : 미 제의 민족분렬 책동을 반대하는 투생
(4) 민족의 해방과 독립	제 4 절 : 조선인민군 창건
(5) 대한민국의 시련	제 5 절 : 조선노동당 제 2 차대회
(6) 민주화 운동과 발전	제 6 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VII. 고대세계의 생활	제 7 절 : 2 개년 인민경제계획
VIII. 중세세계의 생활	제 8 절 :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
IX. 근세 세계의 생활	제 9 절 : 민주건설시기의 교육문화
X. 현대세계와 우리의 할일	제 7 장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제 1 절 :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남반부 넓은 지역해방
	제 2 절 : 조선인민군의 전략적 후퇴와 반공격준비
	제 3 절 : 조선인민군의 재진공

南(중, 사회Ⅱ:역사, 김성근)	北 (중 급 2 , 3)
	제 4 절 : 진지방어전 제 5 절 : 조국해방전의 빛나는 승리 제 6 절 :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교육문화 제 8 장 :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 제 1 절 : 전후 인민경제건설의 기본노선 제 2절 :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수행 제 9장 :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완성 제 1절 :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제 2 절 : 5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착수, 천리마운동의 시작 제 3 절 : 사회주의 기초건설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 제 4 절 : 5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종화 제 5절 : 전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의 4月인민봉기 제 10 장 :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

南 (중, 사회 Ⅱ : 역사, 김성근)	北 (중 급 2 , 3)
	제 1 절 : 조선노동당 제 4 차대회 제 2 절 : 공업 농업지도 체계의 개편 제 3 절 :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과 국방력의 강화 제 4 절 : 4 月인민봉기 이후의 남조선 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제 5 절 : 전후시기의 교육문화 제 6 절 :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다. 高 級

南 (国史 : 김 상 기)	北 (고 급 1)
Ⅰ. 선사, 고대	제 1 장 : 원시사회
(1) 우리문화의 여명	제 1 절 : 석기시대
(2) 부족국가의 형성	제 2 절 : 생활과 문화
(3) 고대국가의 출현	제 3 절 : 원시사회의 붕괴
(4) 통일국가의 성취	제 2 장 : 고대국가
Ⅱ. 중 세	제 1 절 : 고조선
(5) 고려의 확립	제 2 절 : 부여와 진국
(6) 내란과 사회의 동요	제 3 절 : 고대문화
(7) 고려의 문화	제 3 장 : 봉건국가의 형성
Ⅲ. 근 세	제 1 절 :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8) 조선의 확립	제 2 절 : 삼국의 발전
(9) 문화의 융성	제 3 절 :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
(10) 시련기의 조선	제 4 절 : 삼국시대의 문화

南 (国史 : 김상기)	北 (고급 I)
(11) 조선의 수난	제 4 장 : 신라와 발해
(12) 문화의 혁신	제 1 절 : 신라에 의한 국토남부의 통일
(13) 조선의 피폐	제 2 절 : 발해
IV. 근대 • 현대	제 3 절 : 신라의 융성
(14) 근대화의 여명	제 4 절 : 신라의 붕괴
(15) 민주대한의 탄생과 성장	제 5 장 : 통일적 봉건국가의 출현
	제 1 절 : 고려에 의한 국토의 통일
	제 2 절 : 중앙집권의 강화
	제 3 절 : 고려 • 거란 전쟁
	제 4 절 : 무신정권의출현, 농민폭동
	제 6 장 : 13 ~ 14세기의 고려
	제 1 절 : 몽고와의 전쟁
	제 2 절 : 14세기 고려의 내외형편
	제 3 절 : 고려의 문화
	제 7 장 : 15세기 봉건제도의 발전
	제 1 절 : 이조초기의 개혁
	제 2 절 : 정치제도
	제 3 절 : 15 ~ 16세기의 문화
	제 8 장 : 임진조국전쟁
	제 1 절 : 16세기 후반기의 국내형편
	제 2 절 : 임진 조국전쟁
	제 3 절 : 전쟁의 피해와 그후의 대외관계
	제 9 장 : 봉건제도의 붕괴
	제 1 절 : 생산의 복구 경제의 새로운발전
	제 2 절 : 실학사상
	제 3 절 :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
	제 4 절 : 17~19 세기의 문화

3) 教材에 反映된 歪曲内容 分析

앞서 歷史教科内容의 南北 比較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初級(5, 6学年)用 教材는 各単元의 主題를 아동의 수준에 맞게 단편적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歪曲 해석된 점이 있으나, 部分的으로는 具体的으로 歪曲된 内容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내용기술이 소박한 애국심, 조국애 향토애를 기술하기 위한 감정적 어귀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을 증거로 歷史歪曲 内容을 具体的으로 밝혀내기는 어렵다. 물론 歪曲된 표현만을 간추린다면 가능하겠으나 歪曲内容을 추출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高級(高1)教材는 時代区分으로 보아 石器時代부터 19세기 전반까까지의 歷史를 取扱하고 있어서 歷史的인 날날의 事件記述로서 歪曲内容을 押出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歷史的 事件自体는 우리国史界의 記述과 비슷한 점이 많았으나 全体的인 歷史記述의 方向에는 根本的인 차이점이 많았다. 따라서 高級用教材分野에 해당하는 内容은 우리 国史와의 면밀한 比較검토로 전체적으로 比較됨이 妥当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高級用과 初級用教材는 위와 같은 問題들로 因하여 여기에서는 具体的인 歪曲内容抽出을 보류하고 다음 研究로 미룬다.

가장 歪曲内容이 두드러지게 그러나 비교적 体系와 内容性있게 歷史가 記述된 것이 中級用(중2, 3年)教材이었다. 中級用은 時代的으로 19세기 후반 개항이후부터 해방에서 1960代까지

近代史 現代史를 취급하였기 때문에 두드러진 歪曲內容이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3.1운동이후 日帝와 外来侵略에 対한 우리민족의 항쟁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塗色하고 특히 金日成 中心의 歷史로 塗色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860年부터 解放以後까지 中級敎材에서 取扱한 內容中에서 歪曲 造가 두드러진 事件만 간추려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事件名은 우리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 )을 하여 北의 용어도 併記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용어가 없는 것은 北韓의 용어를 그대로 기술하였다. 歪曲捏造內容은 文段落, 內容 段落別로 提示했다.

(1) 壬午軍乱 (1882년 군인폭동)

o 여러차례 패배한 미국은 일본을 내세워 1875년 운양호로 침입케 하여 통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역사 중2 PP 11-15>

(2) 東学乱 (1894년농민전쟁)

o 자본주의 침략자들은 인민생활에 큰 화를 미쳤다.

o 양반지주들은 사치와 향락이 더욱 심해지고, 농민들은 살길을 잃고 만주와 씨베리아로 떠났다.

o 실패원인 : 1894년 농민전쟁은 민족 브르죠아지나 노동계급이 아직 발생하지 못하고, 농민들의 각성이 미약하여, 뚜렷한 혁명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지 못한 까닭이다.

<조 중2, PP17-21>

(3) 조선국민회의 조직

o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1917년 열렬한 교육자이시며, 반일혁명투사인 김형직 선생이 〈조선국민회의〉를 조직하셨다.

o "나라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나라를 꼭 되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 금강산… 등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이야기를 들려주어 조선사람이 된 긍지감을 북돋아 주셨다."

o 원쑤들에 의하여 투옥,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불굴하였다.

o 노동자, 농민들은 일제와 자본가, 지주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조, 중 2. PP28-31〉

(4) 맑스-레닌주의의 보급과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

o 로시아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 후 우리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었다.

o 1920년대에 노동계급이 급속히 장성하여 투쟁이 적극화 됨에 따라 급속히 전파되었다.

o 맑스-레닌주의의 보급후 민족해방투쟁이 급속히 발전되었다.

o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이 장성화 하는 가운데 1925년 4월 17일 조선노동당이 창건되었다.

o 조선노동당의 지시하에 전개된 6·10 만세시위…

o 원산 총파업에 뒤이어 노동자들의 파업은 폭동의 형태를 띠면서 진행되었다.

o 1930년 단천 농민들의 폭동

o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영향하에 청년학생운동도 발전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조선역사 중2. PP39-41>

(5) 3·1 独立運動(3·1 인민봉기)

o 로시아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승리가 조선인민에게 해방과 승리의 서광이 되었다.

o 김형직 선생이 지도하신 조선국민회의 회원과 애국적 인민들이 시위 투쟁하였다.

o 김일성 원수는 여덟살의 나이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위대열에 참가하였다.

o 3·1 운동의 실패원인: ①인민봉기를 영도할 맑스 레닌주의당이 없었기 때문, ②지도부에 브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이 앉았기 때문, ③국제 혁명역량의 적극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

<조선역사, 중2 PP32-34>

(6) 김일성원수님의 초기 혁명활동

o 김일성 원수님은 1912년 4월 혁명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o 아버지 김형직선생은 불굴의 반일 혁명투사이시며 애국자이시다.

o 김형직선생은 1917년 국내외 독립운동지사들과 제휴 조선국민회의를 조직지도하시고 옥중간고에도 불구하고 투쟁하셨다

o 김원수는 남달리 일찍부터 일제를 미워하고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셨다.

o 1927년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 맑스-레닌주의 학습에 열중하셨다.

o 1928년 규찰대를 조직하여 반동군벌들에게 큰 타격을 주셨다.

o 1929년 투옥됨. 옥중에서도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진행…

o 1930년 출옥하여 지하활동과 무장대오결성준비 진행…

o 그러므로 민족적 영웅인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어야…

〈조, 중 2 PP42-49〉

(7) 金目成의 항일무장투쟁의 개시

o 1930年代 김원수의 영도하에 항일무장투쟁조직을 전개하게 되어, 반일해방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

었다.

o 항일유격대는 원수의 지도밑에 노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혁명개시

o 근거지는 적의 통치구역을 떠난 국경지대 : 왕청, 연길 훈춘, 화중, 안도등

o 근거지엔 역사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인민혁명정부>를 조직 민주개혁실시

o 적들은 근거지 토벌에 날뛰, 1933년 소왕청 유격근거지에 침입, 영웅적 투쟁으로 격퇴

o 1933년 9月 항일유격대원들은 항일구국군 병사들과 연합작전으로 동녕현 성진공 전투를 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o 유격대원들은 항일 구국군 병사에게 용감성과 영웅성을 보여주었다.

o 1934년 유격대원들을 통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함.

o <조선인민혁명군>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장투쟁 발전시킴

<조, 중 2, PP49-60>

(8) 조국광복회와 보천보전투

o 1936년 2월 조선인민 혁명군 간부회의, 반일민족통일戰線을 형성 혁명운동을 조직 지도할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준비

o 김원수는 조국광복회의 창건을 선포, 10개강령 발표

o 강령내용 : 조선인민의 투쟁목표를 밝히고 일제 식민지 통치를 뒤집어 인민정권을 세우자는 것.

× 일제와 친일주의자의 토지몰수 - 예속자본가들의 토지몰수계획

× 북부국경지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백두산근거지 창설하자

×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공산당 창건을 준비하고 - 효과적진행

× 김원수는 일제에 큰 타격을 주고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국내 진공을계획→보천보전투

o 보천보 전투이후 조국광복회 조직 강화

o 보천보 전투는 탄압에 시달리는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김원수의 국내진공 이었다.

<조, 중2, PP60-68>

(9) 金日成의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

o 김원수는 새로운 투쟁과업을 제시

o 조선인민혁명군은 1937 ~ 38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

o 1939년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원수의 명령아래 일제의 만주 침략작전부대와 유격전을 활발히 개시

<조, 중2, PP76-78>

(10)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활동

o 조선인민혁명군은 1940년 김일성원수의 가르침에 따라 소부대로 나누어 활동하면서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해가면서 정치사업을 단행-혁명의 최후 승리를 주동적으로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조, 중2, PP76-78>

(11) 金日成 항일무장 투쟁의 승리

o 조선인민혁명군의 영웅적 진격앞에 일제는 견디지 못해 1945.8.15 무조건 항복

o 항일무장 투쟁의 승리의 원인 :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에 의하여 조직지도되었기 때문 ② 항일유격대원들이 단결하여 싸웠기 때문 ③ 인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

o 조선인민역사에서 차지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의의 : ①반일민족 투쟁을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② 이 투쟁을 통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모든 혁명역량이 강화되었다. ③ 김일성의 영도하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혁명전통 이룩함.

<조, 중2, PP79-83>

(12) 10월인민항쟁

o 해방후 미제는 남조선을 식민지화, 양키식 문화를 강제로 퍼뜨리며, 원조라는 이름으로 상품 시장화

o 10월인민항쟁 : 남조선인민은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 실시를 요구 용감히 싸웠으나 실패, 그러나 미제와 이승만 도당에 큰 타격을 줌.

o 1946.10.1 대구시민의 항쟁구호.

①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절대 반대한다.

② 정권은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③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넘겨라.

<조, 중2 PP95-97>

(13) 미제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o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 주둔, 미제의 앞잡이들의 책동으로 조국통일독립을 지연됨.

o 남조선 전국 각지에서 북조선과 같이 민주개혁 실시를 외치면서 파업시위

<조선역사, 중급3, PP10-12>

(14)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

o 미제의 앞잡이들의 전쟁준비 : 미제는 1948.8. 이승만 정부와 <한·미군사협정>을 맺고 통솔권을 쥠, 1948.12. <한·미경제협정>을 맺고 경제의 모든 부분을 손에 쥠. 국가 보안법을 만들어 애국적인인민들을 탄압

o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 1948.10. 괴뢰군 14년대 명사를 폭동 반발, 시민들도

o 미제와 이승만 도당은 여러 제의를 거부하고 북반부 침략전쟁을 이르킴

〈조선역사 중급3, PP26-30〉

(15)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남반부 넓은 지역 해방

o 미제와 앞잡이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없애고 전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하려고 1950·6·25 쳐들어 옴.

o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의 앞잡이를 쳐부수고 인민들을 해방시키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이는 정의의 조국해방 전쟁이었다.

o 남반부 넓은 지역해방 :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반동통치 밑에서 해방된 남반부의 인민들은 기쁨에 들끓었다.

o 해방된 지역에 민주개혁실시 : 식민적 봉건억압 착취에서 해방

o 미제침략자들이 가는 어디에서나 인류역사상 찾아 볼 수 없는 야수적 만행

〈조, 중3, PP.31-36〉

(16)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

o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려던 미제는 도덕적 폐배와 정전담판에서의 공화국측의 정당한 투쟁에 못이겨 1953·7·27·협정에 조인

o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요인 : ①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정확한 영도, ② 김원수가 영도한 항일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은 강철같은 인민군대, ③ 북반부에 창설된 인민주의제도가 안정됨. (후방 든든) ④ 사회주의와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

<조선역사 중급3, PP53-56>

(17) 남조선에서의 4월인민봉기

o 미제와 이승만 도당의 식민지예속화 정책과 매국적 반동통치에 남조선 인민들은 극도로 분노하여 4월 인민봉기를 이르켰다.

o 4월인민 봉기는 미제의 식민 통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조, 중급3, PP86-91>

(18) 4월 인민봉기 이후의 6-3 봉기

o 4월 인민봉기 이후의 남조선 정세 : 미제는 리승만 괴뢰 정권이 무너지자 장면을 들어앉힘. 매국정책실시 청년 학생들 대대적인 시위

o 김원수는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o 1961·5月 미제는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박정희 역도의 군사 독재정권을 세움.

o 박정희는 미제의 지시밑에 한일회담을 끝장내어 미제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이중적 식민지를 만들려고 발악

o 6·3 봉기 : 울분에 쌓인 애국청년 학생 인민들은 군사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 이 투쟁은 괴뢰정권을 타도하지는 못하였으나 파쇼정권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음.

〈조선역사 중급3, PP106-111〉

2. 大学 및 一般用 歷史教材 歪曲内容 分析

大学 및 一般用 歷史教材는 많이 있다. Ⅱ章의 北韓 歷史観 分析에서 여러 教材가 개괄적으로 分析되었다. 역사기술의 방향과 歷史解析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여러 教材의 分析을 通하여 종합하여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北韓의 유물사관적 정치적 歷史観의 立場이 그들의 国史 기술에 具体的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의 분석에 초점이 있다.

앞서 初, 中等用 歷史 教材의 分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石器時代 以後 近代史 以前까지의 歷史는 北韓側에서 보면 관심이

덜한 편이고 따라서 歪曲 捏造도 덜한 편이다. 반면에 近代史 19세기 후반 개항이후의 歷史는 北韓의 관심도 높고, 歪曲捏造도 두드러진다. 이것은 日帝 및 外来侵略 세력에 대항하여 싸운 우리 민족의 투쟁이 공산주의가 주축이고, 김일성이가 주축이 된것처럼 꾸미려는 북한의 政治的 속셈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北韓이 近代史를 취급하기 위하여 펴낸 <조선민족해방투쟁사>를 중심으로 사건별로 歪曲內容을 파악해 본다.

歷史的 事件別로 事件의 經過, 原因, 結果 特記事項等으로 나누어 南北의 記述을 対照的으로 提示한다. 事件이 앞서의 初·中等用 歷史 敎材分析과 겹치는 것이 많이 있으나 中等用 敎材와 大学一般用 敎材의 差異를 比較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提示한다.

1) 丙寅洋擾 (1866 년 8월)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1866 년 8월 仏의 로즈 (Roze) 제독은 軍艦 3隻을 이끌고 한강의 양화진까지 왔으나 o 都城 攻擊이 不可能함을 깨닫고 정찰에 그치고 일단 퇴각. o 同年 9월에 仏은 軍艦 7隻에 陸戰隊 600 여명을 거느리고 강화성을 포격. 점령하여 殺人, 掠奪, 放火를 일삼음. o 정족산성에서 擊退.	o 1866 년 8월 仏의 로제 제독은 3隻의 軍艦을 이끌고 서울 부근에 艦包사격. o 大院君은 官憲을 파견, 전국의 용병 자진편성하여 이에 응수. o 로제는 3隻의 소함대로는 조선정복이 不可能함을 깨닫고 퇴거. o 同年 9월 仏은 7隻의 軍艦에 3500 명의 兵力으로 침공하여 西海岸 일대에 海岸封鎖宣布 o 江華島, 통진에 不法 上陸. o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擊退
原因	o 프랑스神父 학살에 대한 항의 o 武力征伐을 통한 朝鮮 開国 시도	o 수천명의 天主教徒処刑과 仏神父 학살. o 仏은 이 사건을 조선침략의 구실로 삼음. o 仏은 艦包사격의 공갈만으로써도 능히 조선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타산.
結果	o 승리한 大院君은 더욱 軍備를 확장. o 天主教의 탄압과 쇄국정책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함.	
特記事項	〃大院君이 仏의 선교사를 처형한 것은 정당하다.〃 〃교만한 무력침공자들의 여하한 위협과 야수적 만행도 조국애에 불타는 조선인민의 투지를 꺾지 못했다.〃	

2) 제네랄 셔만호 사건 (1866 년 7월)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1866 년에 重武装한 美国商船 제네랄 셔만호가 大同江으로 와서 통상을 요구. o 거절당한 후 強奪 行為를 하다가 조선의 軍民과 충돌, 셔만호가 全燒됨.	o 1866 년 7월에 미국 商船 제네랄 셔만호가 도마스 선교사와 함께 대동강에 不法 侵犯하여 o 평양부근 정찰, 약탈행위 감행 o 미국은 쌀 1000 석과 거액의 금, 은, 인삼을 요구 o 제네랄 셔만호 불탐.
原因	o 美国은 朝鮮의 人蔘과 茶에 대한 관심이 커서 조선과 통상 희망. o 조선의 무덤속에 들어있는 금은 宝貨에 대한 貪欲.	o 조선을 극동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침략 계획. o 미국을 위한 시장으로 조선의 의의 증대 o 조선은 「황금의 산」으로 알려졌기 때문
結果	o 辛未洋擾의 原因이 됨..	o 辛未洋擾의 原因이 됨. o 本格的인 朝鮮 侵略의 前哨戰
特記事項	〃宗教의 탈을 쓰고 朝鮮에 와서 美国独占 資本家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英·美人 宣教使들은 信者들에게 도마스를 '조선에 基督教를 伝播한 첫 殉教者', '도마스 추도회 거행', '도마스 목사 기념 예배당 건립', '도마스 목사 기념 伝道船 造作' 等의 행동을 통해서 미국 강도들의 악독한 제네랄 셔만호 사건의 본질을 조선 人民들 앞에서 오랫동안 숨폐 기만하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	

3) 德山堀塚事件 (1868 년 4 월)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1868 년 4 월에 미국 資本家 「젠킨스」는 독일인 「오펠트」를 이용하여 챠이나호로 德山郡에 上陸하여 朝鮮人 天主教徒들의 길 안내로 大院君의 生父인 南延君의 墓를 盜掘 企図. o 러시아 군인이라고 가장하고 官衛에 不法 侵入하여 武器와 財物掠奪. o 大院君 生父의 墳墓 盜掘時 묘직이와 부근 인민들의 저지로 실패, 도주. o 다시 永宗島 上陸하여 開国 通商 요구. o 官軍과 接戰. o 소탕 섬멸됨.	o 1868 년 4 월에 미국 資本家 「젠킨스」는 독일인 「오펠트」를 이용하여 챠이나호로 德山郡에 上陸하여 朝鮮人 天主教徒들의 길 안내로 大院君의 生父인 南延君의 墓를 盜掘 企図. o 러시아 군인이라고 가장하고 官衛에 不法 侵入하여 武器와 財物 掠奪. o 大院君 生父의 墳墓 盜掘時 묘직이와 부근 인민들의 저지로 실패, 도주. o 다시 永宗島에 上陸하여 開国 通商을 요구. o 官軍과 接戰. o 소탕 섬멸됨.
原因	o 왕릉에 들어 있는 보물에 貪 o 朝鮮 両班들의 祖上 崇拜思想을 이용하여 大院君에게 요구조건을 내세우기 위해.	o 왕릉에 들어 있는 보물에 貪 o 朝鮮 両班들의 祖上 崇拜思想을 이용하여 大院君에게 요구조건을 내세우기 위해.
結果	o 西洋人들의 위신이 추락됨. o 排外思想이 더욱 굳어지고 o 天主教 弾圧이 더욱 심해짐.	o 〃미국 강도놈들의 야수적 만행에 대한 소식이 전 조선에 전파되자 전체 조선 인민들은 다시금 원수에 대한 더욱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뒤끓었다.
特記事項	〃侵略道具인 基督教 伝道의 自由, 権利, 取得을 위하여……〃	

4) 辛未洋擾 (1871.4)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1871년 4월에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인 로저스는 5척의 군함과 병력 1,230명을 동원 인천 앞바다에 들어왔다. o 수비하고 있던 관헌들은 강화 해협으로 올라오던 美艦에 포격을 가함 o 평화적교섭이 불가능함을 안 美艦隊는 草芝鎭과 廣城鎭을 점령 o 「魚在淵」이 거느린 朝鮮守備兵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美艦隊는 40여일만에 중국으로 퇴각	o 1871년 4월에 로저스는 5隻의 軍艦과 數十隻의 小艦船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 침입 o 平和的 交涉의 仮面을 쓰고 傍若無人하게 行動 o 조선 政府는 거절 堅退
原因	o 셔만호 사건에 대한 向責 o 美国이 朝鮮開国을 試図	o 제네랄 셔만호에 대한 問罪 o 통상조약의 체결 開港要求
結果	o 大院君의 鎖国政策은 더욱 굳어짐 o 斥和碑 建立	o 大院君의 鎖国政策은 더욱 굳어짐 o 斥和碑 建立
特記事項	"国際情勢에 暗昧한 大院君은 前에 겪은 여러 사변들에서 옳은 經驗敎訓을 얻으려 하지않고 더욱 自高自大하였다. 그 결과 밖으로는 날로 增大되어가는 自本主義 侵略勢力 앞에서 우리나라의 힘을 더욱 弱하게 하였으며 안으로는 封建体制의 危機를 一層 격화시키었다."	

5) 雲揚號 事件 (1875 . 8)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1875년 戰爭을 挑發시킬 계획 아래 무력 시위를 하던 운양호는 淡水를 공급받고자 한다는 구실로 漢江 支流를 거슬러 올라가자 o 江華 草芝鎭의 朝鮮 砲台에서는 이에 發砲 하였다.	o 1875년 8월에 일본船인 雲揚號는 戰爭을 挑發시킬 계획아래 강화 해협에 不法 侵入 o 이에 江華 草芝鎭의 朝鮮 砲台에서는 發砲 하였다.
原因	o 日本의 武力 示威	o 일본이 상품 판매 시장 획득을 위해 o 일본 군벌들의 조선 침략 주장 o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받음 o 조선 침입을 위한 구실 조작 위해
結果	o 丙子修好條約 체결	o 丙子修好條約 체결

7) 壬午軍乱 (1882. 6)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1882.6월에 給料로 配給된 양곡에 분격한 軍人들이 민겸호집으로 몰려가 전개한 示威運動이 폭동화 o 大院君의 衝動에 의해 乱軍들은 더욱 난폭해져 o 官庁 및 日本의 公使館 襲擊 o 민겸호등의 타살 o 민비 도망	o 분격한 군인들은 軍器庫占領, 악질군관 처단 o 민겸호의 집을 습격, 파괴 o 포도청, 의금부等을 습격하여 무고한 죄수를 석방 o 각 창고를 헤쳐 군인들과 빈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줌 o 민씨 일파의 집 습격, 일본인 교관 처단 o 일본공사관 습격
原因	o 開化派에 대한 守舊派의 반항 o 大院君의 閔妃 勢力에 대한 항쟁 o 일본세력의 進出에 대한 民族的인 반항	o 별기군에 대한 특별대우 o 13개월간이나 밀린 俸米中에서 겨우 1개월의 俸米에 모래와 겨가 절반이나 섞여 있었다.
結果	o 대원군의 再執權과 乱의 鎭圧 o 淸의 內政간섭 招来 o 日本과 제물포 조약 체결	o 大院君의 再執政 o 폭동군인과 빈민들은 가혹하게 토벌됨 o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일층提高 o 청·일 양국세력의 조선 침투 강화
特記事項	〃封建統治 階級의 代表者였고大土地 소유자였던 大院君이 軍人들과 都市 貧民들의 절실한 요구를 解決하여 줄리는 만무였다. 우선 그는 自己 中心의 封建 統治機構를 재편성하기에만 급급하였고, 폭동군인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가서 엄혹한 처단을 내릴것을 계획하였다. 〃	

6) 朝·日 江華島条約(1876)

	南 韓	北 韓
条約의 性格	o 조선은 3개소의 항구를 일본에 개방하고 거류지를 설정. o 일본은 하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o 불평등 조약	o 조선의 自主権을 侵害하는 강도적인 요구 o 불평등 조약 o 미국의 지지 원조
結果	o 朝鮮의 開国 o 日本에 修信使 派遣 o 3港의 開港과 日本과의 무역	o 봉건사회로부터 점차 半封建, 半植民地社会로 伝変 o 封建朝鮮은 外来自本主義의 本格的인 侵略을 받게됨

8) 甲申政變 (1884.10)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1884년 10월 開化派는 日本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의 원조를 받고 일본 유학생 출신과 사관생도를 동원하여 郵政局 落成 축하연을 기해 구데타 단행 o 事大党 要人 殺害 o 新 政府 樹立과 改革政綱 發表 o 淸兵의 武力干涉과 日兵의 敗退 o 三日天下로 실패	o 신축 落成된 우정국의 開庁 축하연을 기회로 守旧派에 對한 開化派의 구데타 단행 o 守旧派 大臣들을 암살기도 실패 o 왕을 경복궁으로 피난시킴 o 開化派 人物로 신 정부 조직 발표 o 淸軍이 왕궁에 도착 o 日本軍의 철수 o 三日 天下로 실패
原因	o 事大党 (守旧派) 과 獨立党 (開化派) 의 對立 激化 o 獨立党의 政變 計劃과 日本의 背後 操縱	o 開化派와 守旧派 對立 o 일본이 開化派를 이용하여 自己 勢力 扶植 努力
結果	o 事大党 政府의 再建과 淸의 影響力 增大 o 日本 勢力의 弱化와 挽回를 努力을 하게 됨 o 한성조약, 텐진조약 체결	o 淸·日 양국세력의 朝鮮에의 침투 강화 o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민족 정신과 근대적인 신문화 계몽 운동을 대두하게 하는데 선구적 역할
特記事項	갑신정변의 失敗 原因은 "社會 革命 力量이 微弱했고 開化派가 人民 大衆의 革命 力量에 依據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겁냈으며 日本 侵略者들에 대해 잘못 認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甲申政變의 意義는 근대 조선에서 부르죠아 民族 運動의 序幕이었다는데 있다."	

9) 甲午農民戰爭 (1894)

	南 韓	北 韓
事件의 経過	o 農民들의 全面的인 蜂起 o 官軍의 敗戰과, 東学軍의 進撃 o 中央 官軍의 派遣과 清国軍隊 派遣의 要請 o 東学軍의 全州 占領과 官軍의 休戰 提議 o 東学軍의 全州 철수 o 清日 양국의 介入 o 전봉준의 北上計劃 失敗	o 1894年 1月 10 日에 고부군수 조병갑의 万石洑 水税強徴에 격분한 고부, 태인지방 農民 수천명이 궐기 o 公文書 焼却, 무고한 죄수 석방. o 폭동농민들은 10 日만에 해산 帰家 o 政府에서 보낸 按覈使 이용태는 조병갑보다 더 農民들을 못살게 했다. o 3 月末 재차 궐기 폭동 o 農民軍 편성 o 全国的 범위의 農民戰争으로 拡大 o 全州 和約 맺음.
原因	o 無能한 国内 封建 勢力의 圧迫에 대한 반항 o 外国勢力 침투에 대한 民族的인 반항	o 土地를 中心한 계급적 모순 대립이 남한에서 심함. o 農民에 대한 봉건 귀족의 착취 심함. o 東学의 敎祖伸寃運動 失敗
結果	o 対内的→甲午改革 o 対外的→清日戰争	o 執綱所設置 o 清日戰争
特記事項	農民戰争의 失敗原因은 "새로운 革命的 階級의 확고한 영도가 없었고 農民軍 指揮部 内에서의 意見이 不一致했고, 徹底하고 革命的인 闘争綱領이 없었고 革命的 闘争方法을 몰랐기 때문이다" "甲午農民戰争은 비록 많은 部面에서 東学이라는 종교적 外皮를 띠고 있었으나 조선인민의 고상한 愛国主義와 革命伝統을 높이 示威한 빛나는 革命運動이었다"	

10) 甲午改革 (1894.6)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ㅇ 武力에 의하여 清国의 세력을 朝鮮으로부터 축출한 日本은 朝鮮의 内政 改革을 강압적으로 断行	ㅇ 日本은 大兵力으로 朝鮮王宮을 새벽에 不意 습격 ㅇ 日本 公使와 大院君에 의해서 親日 政府 組織 ㅇ 조선의 内政 改革 實施
意義	ㅇ 우리나라 近代化의 出發點 ㅇ 自主的 力量에 의한 것이 아니고 外勢의 강압에 의해서 개혁 단행됨 ㅇ 일반 국민 냉대	ㅇ 日本人들의 朝鮮 侵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

11) 乙未政変 (1895)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日本人들은 大院君과 결탁하여 王宮을 포위 습격 점령 o 閔妃 一派 학살 o 閔妃 殺害 o 親日 內閣 組織	o 日本人들은 大院君과 결탁하여 王宮을 포위 습격 점령 o 閔妃 一派 학살 o 閔妃 殺害 o 親日 內閣 組織
原因	o 三国 干涉을 계기로 하여 조선에서의 日本의 優位가 무너지고 러시아가 優勢를 占하게 되자 o 日本은 朝鮮에서의 勢力 挽回를 爲해 努力	o 閔妃와 親露派 除去을 위해
結果	o 列国의 非難 o 義兵의 蜂起	o 日本 侵略者들을 반대하는 人民들의 闘争은 더욱 적극화되어 反日 義兵 運動이 전개

12) 迎春門事件 (1895.11.28)

	南 韓	北 韓
事件의経過	o 1895.11.28日에 윤치호 등 親美派가 美国公使館에서 제공한 武器, 弾薬으로 武装하고 迎春門으로 부터 王宮으로 쳐들어가 高宗을 奪取하려고 試図 o 親日政府가 事前에 이를 탐지하여 守備를 튼튼히 함으로써 失敗	o 1895.11.28日에 윤치호 등 親美派가 美国公使館에서 제공한 武器, 弾薬으로 武装하고 迎春門으로 부터 王宮으로 쳐들어가 高宗을 奪取하려고 試図 o 親日政府가 事前에 이를 탐지하여 守備를 튼튼히 함으로써 失敗
原因		o 親美派가 国王 奪取陰謀

13) 俄館播遷 (1896.2.11)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播遷 o 親日派를 除去하고 親露派 政府成立	o 1896년에 親露派의 권유에 따라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김 o 親日派를 除去하고 親露派内閣 組織.
原因	o 러시아는 비상수단을 써서 조선에서의 패권을 쥐어보려고 기도 o 朝鮮의 朝野에서 排日의 기세가 高潮	o 親日派타도 o 乙未政變後 人民大衆들은 日本에게 敵愾心을 품고 親露派 支持 o 親日政府 官軍들이 대부분 地方義兵 討伐에 動員
結果	o 러시아 세력의 조선 정부 좌우—러시아는 고종과 親露派 内閣에 強要하여 各種의 利權을 빼앗아 갔다.	o 露日両国 対立의 尖鋭化

14) 乙巳保護条約 (1905)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이도오히로부미 条約案提示 o 日本의 要求를 한국이 거절 o 武力的 위협하에 강제조인	o 日帝는 자기들의 走狗들을 시켜 朝鮮国内輿論을 喚起 o 이도오히로부미를 朝鮮派遣하여 反日運動 弾圧 軍事的 威脅, 大臣들을 매수 o 고종과 一部大臣들은 처음에는 条約案에 完強히 거부 o 삼엄한 일본 헌병들의 포위하에 朝鮮政府의 内閣会議를 열어 討議 決定 o 덧덧 大臣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反対 o 乙巳五賊臣들은 적극 賛動
結果	o 統監府 設置 o 外交権 박탈 o 日本은 一切의 内政干渉을 함	o 日本의 保護国이됨 o 各種 形態의 愛国文化 啓蒙運動이 전개, 각지에서 反日暴動이 일어남. o 国債報償 運動 展開
特記事項	"高宗과 一部 統治層들이 美国에 依拠하여 朝鮮独立을 維持하여 보려고 하는 無益한 試図를 継続" "로시아에서의 1905년 革命의 昂揚은 朝鮮人民의 闘争을 고무 하여 주었다."	

15) 海牙密使事件 (1907년 6월)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헤이그에 도착한 密使들은 信任狀을 보이고 萬国平和会議 參加를 要請하였으나 거절 当함. o 日本의 武力的인 侵約行動을 暴露하고 会議의 參席과 提訴의 權限을 要請했으나 거절당함.	o 1907年 헤이그에 派遣된 세 密使들은 各国代表들을 만나 乙巳保護条約의 무효를 역설하고 日帝의 暴惡無道한 侵略行動을 暴露 o 美·英은 냉대 ● 의장인 로시아 代表는 은밀히 지지하여 고종에게 사절 派遣 여부를 조회. o 이도오 統監은 高宗을 威脅 o 高宗은 密使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責任을 회피
原因	o 乙巳保護条約 締結의 무효 주장	o 식민지적 統監政治에 대한 고종과 一部封建出身의 反感 o 구미 열강국에 조선독립을 애원
結果	o 日帝의 侵略을 促進하는 구실이됨. ● 고종의 退位 o 丁未七条約 締結	o 日帝의 侵略을 促進하는 구실이됨. o 고종의 退位 o 丁未七条約 締結

16) 三·一運動 (1919.3.1)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손병희 등 33인이 독립선언서 낭독 o 시민 만세 示威 o 만세운동이 全国的으로 확대 o 일제의 탄압 o 실패	o 1919.3.1 宗敎系出身의 33人이 朝鮮民族의 代表로 자처하면서 고종의 国葬日을 기해 獨立宣言書를 發表하고 平和的인 示威준비 o 革命的 政党이 없는 条件下에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全人民的 反日蜂起가 暴發 o 日本총독 하세가와는 赤手空拳의 平和的 示威者를 총칼로 탄압하라고 지시 o 3월 5일에 학생들과 서울시민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폭동에 궐기하여 경찰과 피의 闘争展開 o 三千里 江山으로 傳播
原因	o 民族의 獨立 열망 o 民族 自決主義 影響 o 高宗毒殺說과 2.8獨立宣言	o 民族差別政治에 対한 분노 o 고종의 毒殺說과 2.8獨立宣言 o 러시아의 사회주의 10월革命이 反日大衆的 闘争에로 고무
結果	o 民族의 의사 전세계에 알림 o 日帝의 무단정치→文化政治 o 민족해방 운동의 획기적 전환	o 조선인민들은 피의교훈을 얻었다. o 독립군 조직 o 조선노동계급은 경제적 闘争과 함께 정치적 闘争舞台에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
特記事項	"이날 시위로 人民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은 청원이나 평화적 시위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革命的 闘争의 方法으로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패원인을 "①革命者 指導者가 없었다. ②지도부에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이 앉게 되었다는 점 ③국제 革命 역량의 적극적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	

17) 6.10 만세 事件 (1926.6.10)

	南 韓	北 韓
事件의 經過	o 1926.6.10을 기하여 學生들은 全国的인 示威運動을 계획 했으나 事前에 발각되어 全国的으로 多數의 인사가 검거, 투옥되었다. o 6.10일 장례식이 거행되자 독립 만세를 부르는 示威가 各處에서 일어났다.	o 1926년 6월 10일에 各界各層의 朝鮮人民들은 日帝에 對한 격분을 참을 수 없어 罷業, 撤市, 休業, 同盟休學 等을 일으키고 植民地 統治者들을 襲擊. o 純宗의 상여가 파조교에 이르자 群衆속으로 부터 勞動者 青年, 學生들의 先唱으로 朝鮮獨立 萬歲의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옴
原因	o 民族의 悲哀와 日帝에 對한 反抗	o 共産党의 創建에 依한 反日大衆 運動이 성장된데서 o 朝鮮 共産党의 指導下에 발발 o 純宗의 死亡이 계기
特記事項	"朝鮮 共産党이 種派分子들의 派争으로 因하여 組織的 基盤을 構築하지 못함으로써 失敗했다"	

18) 光州學生 反日 事件 (1929.11.3)

	南 韓	北 韓
事件의經過	o 1929년 11월 전남 광주에서 韓国人 中學生과 日本人 中學生의 衝突 o 韓国人 學生들에 대한 일본 경찰의 일방적인 구타, 구금 o 11월3일 동맹휴학 단행, 반일 시위 전개 o 全国的으로 확대	o 1929년 11월 전남 광주에서 朝鮮人 中學生과 日本人 中學生의 衝突 o 朝鮮人 學生들에 대한 일본 경찰의 일방적인 구타. 구금. o 11월3일 동맹휴학 단행, 반일 시위 전개 o 全国的으로 확대
原因	o 植民地 노예 교육 반대 o 愚民 同化政策 반대 o 民族 差別政策 반대	o 植民地 노예 교육 반대 o 愚民 同化政策 반대 o 民族 差別政策 반대
特記事項	"이같은 反日 學生運動은 一部 共産 主義者들과 주로 맑스-레닌 主義 思想의 영향을 받은 先進 學生들의 指揮下에 展開된 大衆的 反日 運動이었으나 日帝의 極惡한 弾圧과 당시 이 運動을 統一的으로 또한 혁명적으로 조직 지도할 革命的 党이 없는 조건하에서 결국 失敗 하였다.	

Ⅳ. 要約 및 提言

여기에서는 本研究의 結果를 要約 提示하고, 研究結果에 依하여 必要한 提案을 한다.

1. 要約

本研究의 結果를 要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研究의 目的

本研究는 唯物史觀의 政治的, 教理的性格을 밝히고, 唯物史觀을 基礎로 만들어진 北韓의 國史觀을 밝히고, 唯物史觀的 國史觀에 依하여 北韓이 우리 歷史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歪曲 捏造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그리고 北韓의 이같은 우리 歷史의 歪曲 捏造 攻勢에 對한 우리의 對策을 마련하기 위한 方案 探索도 本研究의 또 하나 副次的인 目的이다.

2) 唯物史觀의 特徵

① 唯物史觀은 共産主義의 出現을 歷史的 法則에 依한 必然的인 現象으로 合理化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政治 目的性이 強한 歷史認識 體系이다.

② 唯物史觀은 經濟關係가 歷史 發展의 基本要素로 絶對視하는 歷史認識 方法이다.

③ 唯物史觀은 歷史를 階級鬪爭의 過程으로 認識하는 史觀이다.

④ 唯物史觀은 根本的인 社会改革은 暴力 革命에 依해서만 可能하다고 보는 史觀이다.

⑤ 唯物史觀은 共産党의 觀點에서만 歷史를 보고 解釈하는 歷史觀이다.

3) 北韓의 國史觀

北韓의 國史觀은 唯物史觀에 立脚하고 있으며, 이같은 그들의 唯物史觀的 國史觀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方向과 目的을 그대로 反映시키고 있는 派党的, 政理的, 政治的인 史觀이다.

解放 以後 北韓이 正史로서 펴낸 〈朝鮮民族解放鬪爭史〉, 〈朝鮮通史〉, 〈朝鮮歷史〉, 各級 學校 歷史 敎材를 通하여 北韓의 우리 國史에 對한 認識과 解釈의 基本 立場을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① 北韓은 平和愛護的인 民族史를 排擊하고 暴力, 暴動, 戰爭, 鬪爭 中心으로 우리 歷史를 記述하고 있다.

② 北韓은 支配層 中心의 王朝史를 排擊하고 被支配層인 民衆 中心의 國史를 記述하고 있다.

③ 北韓은 農民, 労動者를 歷史 發展의 主體로서 내세우는 反面에 貴族과 王朝의 業績을 排擊하는 國史를 記述하고 있다.

④ 北韓은 對外 民族 鬪爭을 通하여 民族 主體性을 강조하는 方向으로 歷史를 記述하고 있다. (이같은 國史 認識의 方向은 바람직 하나 그속에 숨어 있는 政治的 意圖는 간악하다)

⑤ 北韓은 近代史에 많은 比重을 두어 取扱하되, 共産党과 金日成 活動 中心으로 國史를 記述하고 있다.

⑥ 北韓은 近代의 西欧 및 日本 帝國主義 侵略에 對한 民族의 抗爭을 社会主義 労動 운동으로 塗色하고 있다.

⑦ 北韓은 儒, 仏, 仙 等 宗教 및 宗教界 指導者들의 歷史的 영향을 觀念論으로 몰아 일축하는 반면에 實學者等은 唯物論者로 윤색하여 크게 내세워 國史를 記述하고 있다.

⑧ 北韓은 唯物論에 依하여 우리 歷史의 時代 區分을 다음과 같이 圖式化하고 있다.

- o 原始史 (原始共産社会) : 史前史부터 紀元前 5 世紀 까지
- o 古代史 (古代奴隷制 社会) : 紀元前 5 世紀부터 紀元前後 古朝鮮 · 扶余 · 辰國 (三韓) 時代까지
- o 中世史 (中世封建社会) : 紀元前後三國의 成立時期부터 19 세기 前半期朝鮮王朝末期의 開港前까지
- o 近世史 (近代資本主義社会) : 19 세기 後半期開港以後부터 解放前까지

4) 北韓의 歷史歪曲內容

歷史 歪曲 內容은 初 · 中等用 歷史 敎材와 大學 및 一般用 歷史敎材의 分析結果를 本文에서 仔細히 발췌 整理 하여 提示 하였음으로 여기에서는 近代史를 中心으로 歪曲이나 捏造가 두드러진 事件名만을 提示하고 간략히 설명한다.

① 東學亂(1894년 농민 봉기)의 실패원인, 농민이 뚜렷한 혁명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② <조선국민회의>조직 :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하여 교육자이며 혁명투사인 김형직이 조직했다고 함.

③ 맑스-레닌주의의보급 : 로시아 10월혁명의영향하에 조선에 급속히 보급되었다고 함.

④ 6.10 만세 시위는 조선노동당의 지시밑에 전개되었다고함.

⑤ 1929.11월 광주 학생사건은 공산주의사상과 노동자, 농민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사건이라함.

⑥ 3.1 독립운동(3.1 인민봉기) : 로시아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하에서 전개되었다고함.

- o 김형직 선생이 지도하신 <조선국민회>회원과 애국적인민들이 시위투쟁을 했다함.
- o 김일성은 8살의 나이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함.

⑦ 3.1 운동의 실패원인

- o 지도부에 브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기때문
- o 맑스-레닌주의적 공산당의 지도가 없었기때문
- o 국제 혁명역량의 적극적 지지가 없었기 때문

⑧ 김일성의 초기혁명활동

- o 1928 년 규찰대를조직 반동군벌에 큰 타격을주었다고함.
- o 1929 년 투옥되어 1930 년 출옥 지하활동과 무장대오

결성준비했다함.

⑨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o 김일성은 항일유격대 근거지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혁명정부〉를 조직 민주개혁을 실시했다고함.

o 1934년 유격대원들을 통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조직했다함.

⑩ 조국광복회와 보천보전투:

o 김일성은 1936년 〈조선인민혁명군〉간부회의를 열고 〈조국광복회〉창건을 선포하고 10대강령을 발표했다함.

o 보천보전투에서 일제에게 큰 타격을주고 인민을 해방했다함.

⑪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승리:〈조선인민혁명군〉의 영웅적 진격 앞에 일제는 견디지못해 1945.8.15 무조건 항복했다고함.

⑫ 항일 무장 투쟁의 승리요인:

o 김일성에의해 조직지도되었기 때문.

o 항일유격대원이 단결하였기 때문

● 인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

⑬ 조국해방전쟁:미제와 그앞잡이들이 6.25를 일으켰다고함. (북침했다고함)

2. 提言

唯物史觀的 思想 공세에 의하여 北韓住民과 자라나는 세대가

歪曲된 우리 歷史를 正史로서 강제 學習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러한 唯物史觀的 사상 공세를 남한까지 집요하게 가하고 있다. 이러한 唯物史觀的 사상 공세에 대비 하기 위한 필요한 提案을 본 연구 결과를 土台로 提示한다.

1) 北韓이 對外 抗爭의 歷史를 通하여 民族 主體性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方向에서 歷史 認識이 이루어지고 있다. 他律史觀이나 植民地 史觀을 完全히 克服하고 主體的 民族史觀을 確立하는 것은 北韓의 唯物史觀的 思想 政勢에 對備하는 길이 된다.

2) 北韓은 民族 大衆의 實生活 中心의 國史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王朝史 政治史에 너무 치우친 國史는 止揚 되어야 한다. 歷史 發展에 있어서 民衆의 역할은 重要한 要因이다. 歷史研究에서 이러한 要因이 소홀히 되어서는 困難하다. 역사발전에서 民衆의 역할을 重視하는 国史교육은 곧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동일성 (national identity) 과 民族 一体感을 갖게 하는 교육이 된다. 이것은 国史를 通하여 国民総和를 이루는 지름길이 된다.

3) 우리는 北韓에 比하여 民族史의 研究를 소홀히 한 느낌이 있다. 民族史 연구에 있어서 이니시아티브를 우리가 주도 한다는 것은 北韓의 유물사관적 사상 공세에 대비하는 첩경이다.

4) 北韓은 대외항쟁, 삼국통일 등을 조국통일이라는 역사관에서 꿰뚫어보려고 한다. 民族의 歷史를 通하여 祖国 統一観을 形成토록

하는 것은 必要하고도 바람직한 國史 敎育이다. 民族의 긴 歷史속에서 祖國의 分斷과 結合을 바라볼수 있는 국민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의 國史 硏究에도 祖國 統一的사관이 反映되어야 한다.

5) 북한 및 우리 사상에 대한 연구를 체계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연구 결과 또한 체계있게 국민 대중에게 오해없이 전달되도록 되어야 한다. 사상의 연구와 보급이 손벽이 잘 맞아야 한다. 확고한 민주신념과 투철한 반공정신은 우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기반위에서 세워질수 있기 때문에 北韓의 思想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매스콤을 통한 사상교육과 연구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6) 北韓은 近世史에 對한 우리 歷史를 特히 두드러지게 歪曲, 捏造하고 있다. 이와같은 歪曲 내용과 歪曲의 意圖는 國民들에게 充分히 周知되어야 한다. 이렇게하는 것은 北韓의 그릇된 사상에 對備하는 同時에 이를 바로잡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7) 唯物史觀에 의하여 우리 歷史가 잘못 認識되고 解釈되고 있다. 이는 後世를 위하여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민족의 재통일과 조국 번영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北韓의 歪曲된 우리 歷史를 體系있게 分析하고 올바르고 客觀 타당한 국사를 정립해야한다. 우리 國史에 對한 올바른 體系確立과 더불어 北韓의 歪曲된 國史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는 시급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參 考 文 獻

1 . 李羅英, 朝鮮民族解放闘爭史, 평양 : 학우서방, 1960

2 . 北韓総鑑 (1945 ~ 68) 共産圏 問題研究所. 1968

3 . 共産主義 理論과 実際, 韓国反共聯盟, 1968

4 . 国土統一院, 北韓의 敎科 内容 分析 研究, 1972

5 . 国土統一院, 統一論叢, 1970

6 . 高大民族文化 研究所, 韓国文化社大系 I ; 民族国家史 , 1964

7 . 이병도, 고등학교국사, 일조각, 1973

8 . 변태섭, 고등학교국사, 법문사, 1973

9 . 한우근, 고등학교국사, 을지문화사, 1973

10 . 이상우 · 차문섭, 고등학교국사, 문호사, 1973

11 . 震檀学会, 韓国史 (近世史 및 現代史), 乙酉文化社, 1963

12 . 北韓歷史研究所, 朝鮮通史 上 (1956) 下 (1958)

13 . 北韓, 朝鮮歷史 (中級 II) 학우서방 1968

14 . 北韓, 朝鮮歷史 (高級 I) 학우서방 1967

15 . 北韓, 朝鮮歷史 (上) 학우서방 1967

16 . 北韓, 朝鮮歷史 (初級下) 학우서방 1968